

광 고

원양산업

제 1141 호

(2022년 1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2022년도 신년사 / 5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6
- 원양어선용 외국 수입 어로용품, 사전 면세 가능 / 6
- 해양수산부, 60억 규모 투발루 ODA 예산확보 추진 / 7
- 원양어업경영자금, 선박 안전 관련 수라개조 시 금리 2%로 인하 / 7

■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8

■ 요리 만들기 / 16

(코다리뎀밥)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1년 12월 보고 내용 / 17



해외수산정보

■ 참치어업 동향

- 방콕 가다랑어 가격 3년만에 최고치 / 20
- WCPFC-IATTC, 대형 참다랑어 쿼터 15% 확대 / 20
- 중서부태평양 IUU 추정 참치 감소 / 21
- 중서부태평양 열대성 다랑어는 남획 수준 상회 / 21

- 라니냐 현상,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22
- 피지, 자국 수역 보호 프로그램 시작 / 22
- 11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조업일수 감소 / 23
- 참치 업계·NGO, WCPFC 회의 결과에 실망해 / 23
- 日 재무성, 11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4
- 日 도요스시장 해외 참치 입하 급감 / 25
-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1,000엔 근접 / 25
-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1,330 달러 / 26
- 세이셸, 해외 국적선 입어료·등록비 인상 예정 / 26
- IOTC, 2022년 황다랑어 어획 쿼터 발표 / 27
- 인도양 쌍극자 현상, 참치 어획량에 영향 / 28
- 만타 가다랑어 가격, 금어기에 강한 상승 / 28
- TUNACONS 회원사, FAD 20% 생분해성으로 전환 / 29
- OPAGAC “생분해성 FAD 전면 도입 아직 일러” / 29
- 주 2회 이상 수산물 섭취 시 경제적 효과 / 30
- Tri Marine, 솔로몬제도 인증서에 눈다랑어 포함 시도 / 30
- FDA, 참치·어류 히스타민 규제 강화 / 31
- 美 참치 어업자, 美 정부 태평양 영향력 확대 원해 / 31
- 중국 연승 어업 MSC 인증 평가 시작 / 32
- 中, 초저온 참치 운반선 신조 / 32
- 中 CNFC, 참치 연승선단 개선 작업 실시 / 33
- 中 CNFC, 추가 정부 보조금 받아 / 33
- OPAGAC,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MSC 인증 취득 / 34
- NGO, 동북아 참치어업 개선 목적 190만 달러 확보 / 34

Contents

- 에콰도르, 참치산업 관련 신규 협정 다수 체결 추진 / 35
- 알바니아, 일본에 참치 수출 시작 / 35

■ 오징어어업 동향

- 북서인도양 공해서 중국 오징어 선단 급증 / 36
- 중국 냉동 살오징어 어획량 15만톤 / 36

■ 명태어업 동향

- 美-러 2022년 필렛 생산량 격차 좁혀질 전망 / 37
- 러시아 어업 허가 규정 변경, 큰 영향 줄수도 / 37
- 러시아 수산업계, 대기업의 시장 통제로 기로에 놓여 / 38
- 다렌 항구, 러시아 운반선 재개방 / 38
- 러시아 연육 생산 증가, 가격 영향 없을 것 / 39
- 강력한 수요로 전 세계 수리미 생산량 증가 / 39
- NPFMC, 베링해 명태 TAC 19% 감축 승인 / 40
- 알래스카만 명태 TAC, 14만톤으로 증가 / 40
- RFC, 올해 말 명태 H&G 생산 중단 예정 / 41
- 중국, 2022년 수산물 수입 관세 잠정 인하 / 41
- 러시아 2021년 어획량, 500만톤 근접 / 42
- RCEP 발효, 중국 수산 업체 경쟁력 강화 / 42
- Norebo, 러시아 조선소 인수 / 43
- 러시아 극동 최대 냉동 저장시설 완공 직전 / 43
- Norebo, 수산물 가공 장비 그룹 지분 과반수 인수 / 43
- 러시아 명태 운반선, 평택항에서 전재 가능 / 44
- 2022년 러시아 냉동 수산물 가격 안정적으로 시작 / 44

■ 꽁치어업 동향

- 日 '21년 꽁치 최종 어획량 1만 8,291톤 / 45
- 일본-러시아 수역 연근해 어업협정 체결 / 45

■ 각국 수산 동향

- 日 JAFIC “수온 상승이 홍어의 원인” / 46
- 세계 수산물 무역, 12% 증가한 1,700억 달러 / 46
- 日 11월 수산물 가격, 일반물가보다 상승폭 커 / 47
- 日, 해양 미생물에서 오메가-3 지방산 추출 / 47
-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 운임 다시 상승할 전망 / 48
- 프랑스·덴마크서 트롤 혼획 방지 기술 연구 / 48
- 중국 원양어업 성장률 둔화 / 49
- 페로제도 Krossbrekka, 88미터급 트롤선 신조 / 49
- 中 수산물 생산·소비 증가 추세 이어가 / 50
- Planet Tracker, IUU 활동 위험 평가 도구 마련 / 50
- 日, '22년 고등어 TAC 감소 가능성 높아 / 51
- 노르웨이, 고등어 임시 쿼터 10만톤 설정 / 51
-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 52
- 英·노르웨이·EU, 2022년도 북해 어획 쿼터 합의 / 52

■ 쉬어가는 난 (시)

- 겨울바다 <김남조> / 53

■ 국내 수산 뉴스

-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 가속화한다. / 54
- 해수부,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54
- 해수부, 수산물 소비 확대, 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 55
-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역대 최초로 113.6억불 달성 / 56
- 1월 이달의 수산물 과메기, 김, 홍합 / 56



지난해 베풀어 주신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元旦
한국원양산업협회
임직원일동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2022년도 신년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원양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모든 수산인들이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5대양을 누비고 있는 우리 원양어선들의 안전조업과 풍어의 기쁨을 누리는 한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원양산업 종사자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원양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항만 및 공항 출입국 통제로 선원 교대 및 외국인 선원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획물 전재 지연 및 어가 하락, 유가 급등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원양업계는 각종 현안들을 해양수산부 및 원양노조,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하에 슬기롭게 잘 헤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빠르게 다가온 비대면 사회구조와 변화된 소비 형태 및 경제 시스템하에서 우리 원양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국내외 원양어선원의 안정적인 수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제도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정부의 케이프타운 협약 비준,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 강화 등 원양산업 관련 각종 규제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양산업은 우리나라 어류 생산량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또한 수산분야 주요 수출산업입니다. 원양산업은 연근해어업 어선 척수의 0.5%에 불과하지만 생산량은 46.8%에 해당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과거 65년간 원양산업 종사자들의 도전과 희생정신으로 확보한 해외 어장은 해양영토 확장 차원의 해외 국가 식량안보 산업 요충지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강조 드립니다.

이에 우리 원양업계는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박안전과 조업환경 개선,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원양어선 신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원 근로조건을 점차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어업 기준을 준수하며 MSC 인증 취득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디 수산분야의 소중한 산업인 원양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원양산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원양노조 등 각계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윤명길

중대재해처벌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1월 27일 법 시행 대비, 이행매뉴얼 마련 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이행매뉴얼 제작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가 지난 1월 14일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박태건 교수와 우리 협회를 비롯해 원양업계 18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안전·보건 법령 검토, △중대재해사고 분석, △원양어선 안전·보건관리 현황, △원양어업 안전·보건 이행매뉴얼(초안) 등에 대한 발표, 원양선사들의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원양업계 참가자들은 연구진에 △선사에서 취사 선택이 가능하도록 현재 연수원에서 마련한 포괄적인 매뉴얼 외에 최소 이행사항을 담은 이행매뉴얼의 별도 제작, △육상과 어선에서 이행해야 할 사항 구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태건 교수는 건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매뉴얼을 작성하겠다고 언급했다.

많은 선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협회 소기동 부장의 설명이 있

었다. 소기동 부장은 원양어선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적용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1월 20일에 있을 ‘중대재해법 시행 D-7 최종 점검 웨비나(서울경제와 울촌법무법인 주최)’에 동 사항을 사전 질의했으며 협회 고문 변호사에게도 질의한 상태로 추후 결과를 회원사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법 적용 여부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정, 전담조직 구성 등 이행해야 할 사항이 달라진다.

한편, 매뉴얼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는 화상회의의 한계로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 업계 T/F팀’과 연구진이 부산에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원양어선용 외국 수입 어로용품, 사전 면세 가능

‘사후 환급’에서 ‘사전 면세’로 통관절차 간소화

우리 협회의 건의에 따라 관세법 제143조가 개정되어 원양어선에 적재하는 ‘수입 어로용품’을 수입 통관 없이 바로 원양어선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된 어로용품을 원양어선에 송부하려면 수입통관을 거쳐 관세를 납부한 후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아야 했다. 반면,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는 수입 통관 없이 사전 면세가 가능했다.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어로용품도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에 준하여 간소한 절차로 공급이 가능해졌다.

동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어로용품 등의 적재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60억 규모 투발루 ODA 예산확보 추진

지난해 6월 장관 간담회 시 ODA 확대 건의 반영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10일 개최된 장관 주재 ‘2021년 소통릴레이 원양업계 간담회’에서 우리 원양업계가 요구한 ‘연안국 전략적 ODA 확대’를 반영하여 ‘투발루 어촌뉴딜을 통한 어촌 주민 친환경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당시 간담회에서 우리 업계는 ‘원양어업 경영지원 강화’, ‘ODA 확대’, ‘신조사업 활성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조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업계 건의사항 해결에 나서 ‘원양어선 안전펀드 신조 어선 취득세 감면’,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조건 완화’를 이뤄냈으며 현재 ‘ODA 확대’, ‘원양어선 안전펀드 대상 업종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에서 ‘ODA 확대’ 일환으로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발루 어촌뉴딜 ODA 사업’은 밑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단계이다. 현재까지 투발루와 협의하여 구상된 사업 내용은 소형 부두 건설, 2층 100평 규모 커뮤니티센터(어업훈련센터) 건립,

어선원 양성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어시장 리모델링(태양광패널 설치)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조만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총 사업 규모를 3개년 60억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 확보 여부는 외교부(4월), 기획재정부(5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6~8월)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예산 확보 시 사업 시행은 우리 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에서 담당하게 된다.

원양 업계에서는 동 사업이 추진된다면 안정적인 연안국 쿼터 확보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 ODA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이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이규선 과장을 단장으로 해외수산협력센터, 원양 선사 등이 참여하는 ‘원양 어촌뉴딜 ODA 사업 추진 T/F’는 1월 27일에 제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원양어업경영자금, 선박 안전 관련 수라개조 시 금리 2%로 인하

2022년부터 조건 충족 시 3%→2%

해양수산부의 노력으로 2022년부터 원양어업자가 케이프타운 협정(어선 안전 관련 국제협정) 대비 선박을 수리·개조하거나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수리·개조(관련 시설풀비, 물품 구입 포함)하는 경우 원양어업경영자금을 1%p 낮은 금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적인 금리는 3%로 조건 충족 시

2%로 낮춰진다.

이번 조건 완화는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루 설득해 이루어졌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조건 없는 금리 인하를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 설득에 어려움을 느꼈고 이러한 조건을 개발해 성과를 냈다.

협회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 WTO 수산보조금 관계기관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2.29, 14:00 / 세종청사 4동 441호
 - 참석자 :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 원양산업과장 등 6명 / 협회 해외협력본부장 외 1명
 - 내용 : WTO 수산보조금 협상 주요동향 소개 및 우리나라 입장 수립 등 향후 계획 논의
- 2021년말 원양산업발전 유공자 해수부 장관표창 수상
 - 수상자(2명) : 야그네스수산(주) 선장,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시연구 과제 최종보고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23, 14:00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원양산업의 ESG(환경·책임·투명) 경영도입방안 연구
- 2021년 주요업무보고서 총괄 자료 취합 및 정리
- 2021년 10, 11월분 업종별회비 부과 추진
- 금년도 총수입 및 총지출 예상액 등 자료 분석
- '21. 12월분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 관련 업무추진
 - 수입 및 지출 전표 작성 등
- '21. 11월분 임직원 원천세 신고(서초세무서)

기획홍보부

- WTO 수산보조금 금지 관련 업무추진
 - FAO 41해구 조업선박 현황 및 경영자금 사용여부 등 업계피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제출(원산과, 통상과)
- 한수총 제2차 이사회 서면결의 관련사항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제안(안) ⇒ 가결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 가결
 - 고문 위촉(안) ⇒ 가결
- 원양어업경영자금 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시행계획 및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수립 및 보고(12.24/원산과)
- 2022 원양어업경영자금 적당 소요액 안내(12.24/업계, 수협)
-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업무추진
 - 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방문
 - 일시/장소 : '21.1.5 / 국회 김영진 의원실
 - 내용 : 원양노사 『원양어업 역사 박물관 건립』 공동 건의서 작성·건의
 - 참고자료로 '원양어업 역사 박물관 건립 필요성 연구' 요약본 및 최종보고서 송부
 - * 원양노조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국민의 힘 국회의원 등에 건의 예정
- 나. 보도자료 작성 지원
 - 원양노조 요청으로 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관련 보도자료 초안 '원양협회·원양노조, 원양어업 역사 박물관 건립 추진-원양어업 역사박물관 건립 필요성 연구용역 완료' 작성·송부

- 원양산업지 12월호 제작, 발송(310권)
 - 협회소식 5건(원양 오징어채낚기 어선 3척 신조, 아그네스수산 허옥희 대표 장보고 대상 수상, 티엔에스산업 남극이빨고기 어업 MSC 인증 획득, 관세 감면 조건 완화,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간담회)
 - 국내소식 7건, 해외수산정보 67건
 -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사항, 협회 업무동향 등 정리, 교정 및 편집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135호 12.15, 136호 12.22, 137호 12.29, 138호 1.5/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135호 정보 27건(세이셀, 해외 국적선 입어료 등록비 인상 예정/ 베링해 명태 TAC 19% 감축 승인/ 日 '21년 11월 말 꽁치 어획량 약 1만 8,000톤)
 - 제136호 정보 13건(라니냐 현상,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러시아 연육 생산 증가, 가격 영향 없을 것/ 중국, 2022년 수산물 수입 관세 잠정 인하)
 - 제137호 정보 16건(중서부태평양 열대성 다랑어는 남획되지 않았다/ 러시아 어업 허가 규정 변경/ 일본 꽁치 어업 종어...약 1만 7,000톤)
 - 제138호 정보 5건(TUNACONS 회원사, FAD 20% 생분해성으로 전환/ 中, 초저온 참치 운반선 신조/ 강력한 수요로 전 세계 수리미 생산량 증가)
- 보도자료 및 기고문 작성·홍보
 - 가. 협회장 신년 메시지 송부(12.27, 수산전문지)
 - 수산인신문(1.3, 13면), 한국수산신문(1.3, 16면), 한국수산경제(1.3, 23면), 어민신문(1.10, 5면), 수산뉴스(1월호, 19면), 현대해양(1월호, 29면)
 - 나. 언론사 요청에 따라 기고문 송부
 - 원양산업의 진일보를 위한 업계의 바람 (한국수산경제 1.3 14면, 경영지원본부장)
 - 코로나 시대 수산이 나아갈 방향-원양산업 (한국수산신문 1.3 9면, 이성재 이사)

- 중앙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심의의결서 송부
 - '수산물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대한민국수산물명인의 지정 ⇒ 가결
- '22년 이달의 수산물 선정품목 파악(수산회 문의)
 - 원양어종 3월 참치, 8월 오징어, 12월 대구

회원지원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업무추진
 - 가. 선원법적용을 받는 선박(선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여부에 대한 질의(고용노동부/12.13)
 - 동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 접수(12.21)
 - * (회신) “선원법적용 선박의 산업안전·보건은 선원법 적용해야”
 - 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마련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일시/장소 : '21.12.17, 14:00/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 및 업계 /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민관협의체 협약내용 소개 및 협약서 서명 등
 - 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기초자료 협조요청(회원사/12.27)
 - 위험요인 식별 등을 위한 '18년 이후 발생 선원·선박사고 사례조사
 - * 조사 결과(8개사) 송부(용역수행업체/1.5)
- 승선근무예비역 관련업무
 - 22년도 승선근무예비역 배정인원 알림 및 21년도 편입현황 등 실태조사(남북수산 등 11개사 /12.31)
 - 22년도 배정인원: 10개사 48명

- 제8차 인적요인, 훈련 및 당직전문위원회 1차 사전대책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2.14,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연수원 등 / 회원지원부장
 - 내용 : 제7차 회의 결과 브리핑 및 의제문서 내용 공유, 향후 회의 일정 협의 등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관련 업무추진
 - 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16, 14:00 / 부산시
 - 참석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업·단체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선상투표 제도 안내 및 의견 수렴 등
 - 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모의시험 참여 선박 조사(회원사/12.15)
 - 5개사 12척 참여
 - 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포스터 배포 알림 (회원사/12.21)
 - 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모의시험 실시 안내 (회원사/12.31)
- 2021년 제5차 한국해양연수원 정기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1.12.21 / 서면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연수원장·이사회 임원 / 협회 경영지원부장
 - 내용 :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
- 한국선원관련단체협의회 '21년 4분기 정기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1.12.23, 11:00 / 부산
 - 참석자 : 부산해사고, 부산수산청, 선주·선원 단체 등 / 부산지부 이사
 - 내용 : 해양수산관련 안전 논의 등
- 외국인어선원 근로조건 개선이행 제4차 노사정 합동점검 관련 업무추진
 - 일시/장소 : '21.12.23, 14:00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선원노련, 원양노조 / 회원지원부장, 사원
- 내용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관련 수산물 표시사항 준수 요청(회원사/12.13)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수산물 필수표시사항 표시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21년도 제1차 심의위원회 심의서 제출(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12.17)
 - 신규 장학생(3명) 선정 심의안건 관련 심의서 제출
- 2021년도 원양어선원 해외묘지관리사업 완료보고서 제출(해수부/12.20)
 - 21년도 해외묘지 관리사업 추진 내용·결과, 집행액 등
- 임금채권 및 송환기금증서 승계발급 (동원해사랑/12.20)
 - 303통영 → 805통영(오징어채낚기/499톤)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인정 및 면제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회원사/12.20)
 - 면제선박 기준에 따른 단말기 설치대상 원양어선 제외 등
- 2022년 설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협조 요청(회원사/12.22)
 -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협조 요청
- 2022년도 오션폴리텍 교육생 모집 알림 (회원사/12.23)
 - 어선 5급 40명 교육과정
- 원양어선 무상공급물품에 대한 관세법 개정사항 안내(회원사/12.28)
 - 원양어선용 어로용품 등의 통관절차 간소화 ('22.1.1 시행)
- 2022년도 조정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알림 (회원사/12.30)
 - 냉동명태·냉동오징어 : 22%, 냉동꽂치 : 24%

- 2022년도 선원최저임금고시 안내(회원사/12.31)
 - 월 최저액(재해보상 월 최저액) : 2,363,100원 (2,792,820원)
 - 외국인선원 최저액 : 승선경력 3년 이하 477\$ / 3년 초과 641\$
- 2022년 상반기 검역관리지역 안내(회원사/1.3)
 - 코로나19(전 세계) 및 그 외 지역별 검역감염병
-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제정 고시 및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개정 고시 알림(회원사/1.6)
 - 기존 의료관계법령 상의 의약품 비치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제정 등
- 코로나19 관련 업무추진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 (통영검역소/12.15)
 - 3명(한국 1명, 인도네시아 2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12.24 기준)
 - 1차 접종(662명) / 2차 접종(510명)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 (해수부/12.17)
 - 2개사 2척 21명 PCR검사 확인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항만방역 강화(조치연장) 안내 (회원사/12.16)
 - 국제항해종사자(선원)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독려 요청(회원사/12.17)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5판) 개정 안내(회원사/12.23)
 - 국적선사 소속의 편승자 정보 확인(부산, 여수, 통영검역소/12.27, 12.28, 12.29, 12.30, 1.7)
 - 29명(한국 18명, 인도네시아 5명, 베트남 2명, 필리핀 2명, 기타 2명)
 - 원양어선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적 제출 (해수부/1.7 기준)

- 1차 접종(701명) / 2차 접종(589명) / 3차 접종(120명)
- 내국인선원 승선 전 PCR 검사 확인 조사자료 제출 (해수부/12.31)
 - 3개사 3척 19명 PCR검사 확인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항 변경 알림 (회원사/12.29)
-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항만 방역 강화조치 연장(2차) 안내(회원사/12.31)
-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알림(회원사/1.3)
-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중도퇴소시 유의사항 준수 철저 요청(회원사/1.6)
- 해적관련 업무추진
 - 2022년 1월 청해부대 선박호송작전 계획 알림 (회원사/12.13)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2.14)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위협 증가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2.20)
 - 서아프리카 해역 해적사건 정보 전파 및 경계활동 철저 요청(회원사/1.3)
- '21.11월분 원양어획물 수출실적 확인

구분	누 계(2021년 11월)			
	수출물량 (kg)	전년 대비	수출금액 (\$)	전년 대비
통조림 용참치	127,710,411	95.4%	162,706,065	102.9%
훈제용 참치	10,712,729	75.1%	111,119,224	123.6%
저서 어류	1,952,664	70.1%	29,262,912	87.7%
오징어류	348,112	-	1,267,280	-
새우류	16,721,820	122.3%	14,633,312	138.4%
기 타	639,600	322.4%	1,488,522	429.9%
합 계	158,085,336	95.9%	320,477,315	109.6%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국제옵서버 발전협의회 안전 상정을 위한 선사 간 답회 참석
 - 일시/방식 : 2021.12.16,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립수산물과학원, 경양수산, 대해수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선우실업, 정일산업 / 협력1부
 - 내용 : 국제옵서버 발전협의회 안전 조치사항 안내, 선사 권의사항 수렴
- WTO 수산보조금 협상 등 해수부 방문
 - 일시/장소 : 2021.12.20, 11:00 / 세종청사
 - 참석자 : 해수부 원양산업과장 외 1명 / 협력1부
 - 내용 : WTO 수산보조금 협상, 투발루 ODA 협의
- 2021년 하반기 국제옵서버 발전협의회 참석
 - 일시/방식 : 2021.12.28, 14:00 / 화상회의
 - 참석자 :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립수산물과학원, 옵서버협회, 옵서버, 원양선사 / 협력12부
 - 결과 : 옵서버 활동종료 후 설문조사 실시, 옵서버 안전교육 강화, 태평양 수역 옵서버 승선 독려 요청
- 대서양 원양어업허가증 허가조건에 대한 업계 의견 제출
 - 대서양 바다거북 부수어획 저감을 위한 허가조건
 - (적용대상) '21년 대서양 조업선
 - (준수사항) 원형낚시 사용, 원어 또는 오징어 미끼 사용, 안전 방류도구 구비, 투승 깊이, 보고의무, FAO 지침에 따른 방류 노력
 - (업계의견) 저감조치 이행에 어려움 없음. 선내 구비 안전방류 도구에 낚시 바늘 제거 추가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한-투발루 원양 어촌뉴딜 ODA 사업 진행경과 안내 (참치어업출어사)
 - 2022어기 PNG 신용장 개설 안내(참치선망)
 - 대서양 원양어업허가장 개정(안) 의견 조회(참치연승)
 - 투발루 입항전재(푸나푸티 라군) 재개 안내(참치선망)
 - 2022어기 남방참다랑어 TAG 제작 경비 배정 (CCSBT 출어사)
 - 연안국 수역별 조업일수 소진실적 확인(참치선망)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참치선망)
 - 2022년 지역수산물기구 주요 보존관리조치 안내
 - 2021년 태평양대서양 수역 어획한도 소진실적 (잠정) 확인(참치연승)
 - 21년 11월 지역수산물기구 어획할당량 소진 실적 및 12월 전배 보고(해수부)
 - 인도양대서양 수역 허가선 목록 검토 및 ICCAT 해상전재 허용 운반선 목록 제출 요청(해당 출어사)
 - 2022년 IOTC 선망선-공급선 정보 제출(해수부)
- 참치어업 지원사항
 - 한-투발루 원양 어촌뉴딜 ODA 사업 진행경과 안내 (참치어업출어사)
 - 2022어기 PNG 신용장 개설 안내(참치선망)
 - 대서양 원양어업허가장 개정(안) 의견 조회(참치연승)
 - 투발루 입항전재(푸나푸티 라군) 재개 안내(참치선망)
 - 2022어기 남방참다랑어 TAG 제작 경비 배정 (CCSBT 출어사)
 - 전자조업감시(보고)시스템 기능 개선 수요 조사 (2차)
 - 2020년 투발루 미지불 전제세 납부 안내(참치선망)
 - 2022어기 참치선망 입어허가장 발급(솔로몬)
 - 연안국 수역별 조업일수 소진실적 확인(참치선망)
 - 조업일수 추가 구매 및 전배(참치선망)

해외협력 2부

○ 대 러시아 업무추진

가. 북양트롤 업무추진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알림 (12.17 / 전회원사)

나. 리수역 조업보고(12.21-12.31)제출

(1.4 / 해수부, 주러한국대사관)

- 명태 : 27,779톤(98%소진), 대구 : 3,471톤 (69%소진), 꽁치 0톤

○ 북양합작 업무추진

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12.14 / 전회원사)

-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개정내용 알림
- *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미만으로 제한되는 현지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지분이 24%를 초과하는 경우

○ 오징어어업관련 업무추진

가. '22어기 포클랜드 입어허가관련 각 사별 점수표 현황 알림(12.17 / 채낚기위원장)

나. 격오지 근무자 격려전화 자료작성/제출 (12.17 / 승진수산)

- 1.3일 저녁 5시, '승진801호' 최창길 선장과 해수부장관간 격오지 근무자 새해인사관련 참고자료

다. '22어기 드라곤社 선박재원 정보 취합 제출 (12.23 / 드라곤社)

라. '22어기 주재원 근재보험 가입 요청 (12.22 / 현대해상)

마. 2022어기 입어대비 오징어채낚기선 구비서류 안전장비 목록 등 종합 체크리스트 안내 (12.29 / 포클랜드입어선사)

바. 알젠틴 경계수역 준법조업 조치 (12.28 / 남서대서양출어선사)

사. 선원 백신접종 지원관련 우루과이 민간단체 성금 송금(12.31 / 우루과이 한국대사관/대리점)

아. 포클랜드 파견주재원 준비서류 작성

- 주재원 2명 취업비자 신청서류 제출(1.4/2인)
- 주재원 2명 해외근재보험 가입

자. 포클랜드 컨설턴트 한국채낚기선단 약점 등 개선 요청사항 안내(출어사)

- 드래곤사소속 선박(7척) 개선요청사항 시정증빙 자료 파악/제출(1.6/2인)

차. 제1차 오징어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1.1.7, 14:00 / 협회 부산지부
- 참석자 : 오징어채낚기선사, 트롤선사 대표 / 주재원 2명, 해외협력2부장 외 1명

- 내용 : 주재원 파견 관련 논의

○ 지역수산기구 업무추진

가. 남태평양지역수산물관리기구(SPRFMO) 업무추진

- 제10차 SPRFMO참석자 명단 제출 알림 (12.24 / 오징어위원장, 동원산업)

- 오징어채낚기선 신조선 등록정보 제출 (12.23 / 해수부)

- '805통영, '21은진, '105금양 신조선 등록

- 제10차 SPRFMO참석자 명단 제출 (1.4 / 해외수산협력센터)

- 제10차 SPRFMO 연례회의 제안서 검토의견 조회 (1.5 / 오징어채낚기위원장, 동원산업)

나. NAFO 업무추진

- '22년도 북대서양수산물기구 협약수역 쿼터 이전 요청(12.24 / 해수부)

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업무추진

- 제40차 CCAMLR 보존조치 최종본 알림 (1.3 / 남빙양출어사)

- 88.1해구 70도 이남 및 SSRU 88.8 A-B해구 조업 종료 및 폐쇄 공지(1.3 / 남빙양출어사)

- 어구 투승 금지 시각 : '22.1.5, UTC23:59

- 조업 종료 및 폐쇄 시각 : '22.1.6, UTC23:59

라.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업무추진

- 신규 오징어채낚기어선 선박등록 및 폐선 삭제 (12.27 / NPFC)

- 통영805 호, 은진21 호 선박등록 및 통영803 호, '해인21' 호, '아그네스105' 호 삭제

○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 관련 업무추진

가. '22년 원거리해역 대응 시범사업(신규) 업무협의 참석

- 일시/장소 : '21.12.23, 14: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지도교섭과장 등 3명 / 한성기업 박재은 차장, 협회 협력2부 부장 외 1명
- 내용 : 사업체제(규정상, 일정범위의 위탁수수료 포함 필요), 사업지침관련 협의(특별검사, 사무관경등 용선 준비사항 점검 등)

나. 장기체항 북양트롤선의 용선활용을 통한 원거리 해역대응 시범사업 사업방침 및 과업지시서관련 협회 검토의견 제출

다. '22어기 동 사업방침 및 과업지시서 접수(1.5)

라. 해수부와 협회간 민간위탁사업 수의계약관련 준비서류 작성

- 나라장터 전자입찰 참여방식(수의시답, 착수계, 세부사업계획서)확인 등

○ 해외어장 자원조사 업무추진

- 정일산업 해외어장 자원조사 집행마감 및 확정 (12.13 / e나라도움)

○ 2021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 업무추진

- 2021년 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 사업비 교부 알림 (12.30 / 대체어장자원동향조사 대상선사)
- 교부금액 : 적당 6,076천원

○ '22년도 한국선원관련단체협의회 4/4분기 정기회의

- 일시/방식 : '21.12.23 / 서면회의
- 참석자 : 국립해사고 외 11명
- 자료 : 국적 상선 해기전문인력 육성 필요성(해기사협회 제공)

○ '2021 하반기 외국인 원양어선원 근로실태 조사

- 일시/장소 : '21.12.7, 15:00 / 감천부두
- 참석자 : 부산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 2명, 선원복지고용센터 1명, 원양노조 3명, 부산지부장

- 내용 : 인도네시아 선원 4명에 대한 인터뷰 실시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2.1.6, 11:00/ 원양프라자 3·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부산지부 이사)

- 내용 :

- (산재) '21.12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복지) '21.12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22년도 부산권 냉동창고 항운노조 임금인상 및 부대근로조건 개선협의회

- 일시/장소 : (4차) '21.12.15, 10:00/부산지부
- (5차) '21.12.22, 10:00/부산지부
- 참석자 : (노측) 항운노조 7명

(사측) 원양협회 부산지부장 등 3명

- 내용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사측 부담금 인상 및 부대조건 강력 인상 요구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 보고(부산항만청)

- 입항 : 6개사 7척(풍치봉수망2, 저연승2, 참치연승2, 참치선망1)
- 출항 : 7개사 9척(오징어채낚기3, 참치연승4, 참치선망2)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94개사 881건(12.1~12.31) 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회의 참석
 - 제18차 WCPFC 연례회의
 - 일시/장소 : '21.11.29~12.07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우동식 국장, 국총과 오성택 사무관, 김근령 사무관, 김정례 주무관(총회 의장), 나일강 주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 열대성 다랑어 조치(CMM 2020-01), 태평양 참다랑어 조치(CMM 2020-02) 등 개정 논의
 - 수확전략 웨비나 참석(주최: 시민환경연구소)
 - 일시/장소 : '21.12.14 / 화상회의
 - 참석자 : 해수부 국총과, 수과원, 시민환경연구소, 센터 권현욱 센터장, 김수민, 양재걸 전문관
 - 내용 : 수확전략 소개, 개발 경과, 각 지역수산물 구 수립 현황 및 과제
- 보존관리조치 발간 작업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 국제법 전문가 초청 교육 개최
 - 일시/장소 : '21.12.21/세종 마이스 센터
 - 초청 강사 : 박영선 심판 변론인 사무소 대표
 - 참석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김태호 사원, 해외수산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이희진 팀장, 정수진, 윤유정, 서규혁 행정관, 김선경, 김수민, 원태훈, 양재걸 전문관
 - 내용 : 국제법의 역사, 특징, 중요성 및 국제기구와의 연관성 등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원양산업동향 12월호 업로드
 - E-NewsLetter 11월호 발송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가. 명예해양수산물 활동보고서 OFIS 게재(5건)
 - 나. 2022년 수시보고 수요조사(12.10~12.17, 해수부, 전회원사 등)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 가. 합작기업체 통계 관련 업무
 - 합작기업체 조사결과 무응답 대체, 이상치 파악
 - 임금, 어로원가 재계산(화폐단위 통일)
 - 나. 자체통계품질진단 업무 수행
 - 공표 일정 관련 계획 등록
- 다. 원양어업 생산동향('21.9.) 작성 및 OFIS 게재
- 센터운영관련
 - 나. '21년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사업 예산 이월 승인(12.21, 1.26.)





코다리뽕밥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동태 1마리, 알 1컵, 고니 1컵, 두부 1/3모, 대파 1대, 애호박 1/4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 무 1/3개, 쪽갓 1개, 멸치육수 500ml

<양념장>

다진마늘 2큰술, 간생강 1/3큰술, 새우젓 1.5큰술, 국간장 5큰술, 고춧가루 3큰술, 고추장 2큰술, 된장 1큰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무는 나박하게 썰고, 애호박과 두부는 편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썬다.
- ② 양념장 재료를 섞어 만든다.
- ③ 냄비에 무를 깔고 동태를 넣은 후 멸치육수를 넣어 끓인다.
- ④ 3의 육수가 끓으면 양념장을 넣고 알과 고니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 ⑤ 썰어 놓은 채소와 두부를 넣고 끓인 후 쪽갓을 올려 완성한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12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Ceebu Jen,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 세네갈 생선 음식인 Ceebu Jen 이12월 14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파운드, lbs)	가격(유로/톤)
가다랑어	3.4kg	1,351
	1.8kg	1,300
	1.5kg	1,173
황다랑어	10kg	2,231
	3.4kg	1,375
	1.8kg	1,313
눈다랑어	10kg	1,351
	3.4kg	1,351
	1.8kg	1,300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다카르항	357 유로/MT	경유	'21.12.24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피지 경제 동향

- 코로나19로 인해 피지 경제 규모는 19% 감소했으며, 이는 GDP상으로 20억 달러 이상의 손해.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10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TOTAL	842달러/MT	M.G.O	'22.1.7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업 동향

- 금월 사모아 연근해 및 쿡아일랜드 어장에서의 연승선 조업은 날개다랑어 0.4~0.8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2~0.3톤 정도.

나. 코로나 관련 동향

- 하와이-아메리칸사모아간 4~7월 운항편은 4월 14, 28일, 5월 12, 26일, 6월 9, 23일, 7월 7, 21일 매월 2차례 운항할 예정이며, 입국자는 지정 장소에서 7일간 의무 격리되며 사전에 Talofa pass에 등록해 사전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함(격리 비용은 사모아 정부 전액 부담).
- 사모아-아메리칸사모아 간 항공편은 매주 2차례 운항 예정이다. 입국자는 법무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 격리는 없음.
- 스타키스트 사모아 참치 공장은 코로나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해 매일 1교대 생산가동으로 운영 하다가 현재는 2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정상 가동은 어려운 상황.



다. FDA, Bumble Bee · Starkist 테스트용 제품 생산 허가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Bumble Bee Foods, LLC 및 StarKist Seafood Co.에 발급된 임시 허가를 수정했다고 발표.
- Bumble Bee와 Starkist는 새 허가를 통해 테스트 시제품을 멕시코와 세네갈 공장에서 생산.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기타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조사일
Clipper, Oil	\$2.87(gallon)	'22.1.3

마.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3,300	Sea Jho Co LTD.
	L	3,200	
	M	3,000	
	2M	2,500	
	S	-	
Silver Warehou	2L	3,150	
	L	3,100	
	M	2,600	
	S	1,800	

바.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968/MT LMFO \$768/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1.1.4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뉴질랜드 정부, 외국인 선원 비자 제도 개선안 권고

- 뉴질랜드 해양수산부의 검토 결과, 새로운 외국인 선원 비자 제도 신설 방안이 정부에 권고됨.
- 신규 비자는 모든 외국인 선원이 자국민 선원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임금을 수령할 것을 의무화.
- 발급 가능한 비자의 수를 제한하여 수산업계가 자국민을 고용하고 R&D에 투자하도록 유도.
- 또한 더욱 강화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뉴질랜드인이 외국인 선원에 준하는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
- David Parker 해수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대비의 중요성과 수산업의 탄력성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고, 업계에 생산성 향상, 설비 투자 증가, 자국민 고용 등을 권함.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가나 정부, IUU 단속법 추진

- 가나 수산양식개발부가 EEZ 내 IUU 조업에 관련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충족하는 새로운 수산법 초안 마련을 위해 국무회의의 승인을 촉구.
- 가나 측은 지난해 6월 EU로부터 옐로카드 조치를 받았으며, EU에 사절단을 보내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중.
- Koomson 장관은 산업형 선단에 조업 시기와 금어기 모두 옵서버를 배치하고, 불법조업 감시 및 검문을 강화하고, 경비정 및 연구선 구매를 승인하고, 선박감시 및 자동식별시스템 문제 등을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힘.

나. 토고, 베냉과 IUU 문제 해결 협정 체결

- 가나 · 토고 · 베냉 3개국이 가나만 공동 어업 옵서버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



다.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국립양식센터 및 상업용 양식장 건설 추진

- 가나 수산양식개발부가 국립양식센터 및 상업용 양식장과 실내 구조물, 학교, 숙소, 작업장, 창고 등의 시설이 완비된 양식 훈련 센터 등의 건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
- 해당 프로젝트는 총 976만 달러 규모이며, 약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S\$)/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825	
	10kg 하	1,460	
가다랑어	3.4kg 상	1,325	
	1.8kg 상	1,275	
	1.5kg 상	1,125	
	1.5kg 하	975	

마.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격	유종	조사일	기타
양상급유	730달러/kl	M.G.O	'21.12.31	
항만급유	780달러/kl	M.G.O	'21.12.31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인도네시아 수산 부문 투자 현황

- 수산부문 투자실현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1년 1~9월간 투자 실현 액수가 4조 1,100억 루피아로 지난해 대비 9.67% 감소.
-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스위스, 인도, 일본, 중국 등.
- 주요 투자부문은 수산양식 1조 2,900억 루피아, 수산가공 1조 1,600억 루피아, 어업 7,300억 루피아, 수산무역 7,000억 루피아, 수산서비스 2,400억 루피아 등.

- 해양수산부 투자사업국장 Catur Sarwanto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내 Covid19 사태의 진정 국면에 따라 인도네시아 관심을 가진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기회를 엿보고 있음.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일본, 중국 투자자들이 가공, 냉동사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인도네시아 측은 현재 100여개 투자자들과 투자 실현을 위해 접촉 중.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PNG 원앙어선 선원의 입출국

- ICA에 따르면, 수도인 Port Moresby를 통한 입·출국이 가능함. 단지 이전에 발급하던 도착 비자는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으므로 Electric Visa 신청을 해서 Transit Visa로 입국을 해야 한다는 소식.
- Rabaul항에서 72시간 내 출국할 시 비자가 필요치 않지만 그 이상의 시간 소요 시 마찬가지로 Transit비자를 받아야 함.
- 현재 PCR검사를 위해 최소 1~2일은 먼저 POM에 도착해야 하며, PCR 테스트에 드는 비용은 K750,00(PIH 병원)임.

나. 어류가격 동향

어종	단가	기타
냉동 바닷가재(꼬리)	52달러/kg	미국 수출

다. 유류가격 동향

공급	가 격	유종	조사일
TWL Logistics Ltd	0.8086달러/리터	Diesel	'22.1.3

〈게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방콕 가다랑어 가격 3년만에 최고치

톤당 약 1,750 달러 이상...만타 가격도 상승

2022년 1월 태국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12월 대비 100 달러 이상 상승했으며, 에콰도르 만타 가다랑어 가격 또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현재 톤당 1,750 달러를 넘어섰다. 12월 가격인 1,600~1,650 달러 대비 10 달러 이상 상승한 셈이다. 현재 방콕 가다랑어 가격은 2018년 5월 이후 최고치이며,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만타 가격을 넘어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태국 대형 참치캔 가공업체가 가다랑어에 톤당 1,750 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공업체는 톤당 1,780 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만타 가격의 경우, 한 관계자는 톤당 1,600~1,700

달러 선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관계자는 톤당 1,650~1,700 달러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콕과 만타의 가격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이다.

참치 부문 관계자는 중서부태평양 어획 부진과 COVID-19 문제로 인해 공급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계업자들이 공급을 강하게 통제해 가공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현재 거래되는 가다랑어 양은 가공 공장을 유지할 정도의 최소치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10일자

WCPFC·IATTC, 대형 참다랑어 쿼터 15% 확대

소형 참다랑어 기존 쿼터 유지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허가 하에 확대될 예정이다.

12월 8일자로 종료된 WCPFC 연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대형 참다랑어(30kg 이상) 어획 쿼터를 15%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IATTC 또한 지난 10월 같은 조건의 쿼터 확대를 승인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수년간 진행된 참다랑어 자원 회복 계획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기에 가능했다.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은 IATTC와 WCPFC가 공동으로 관리한다.

일본 수산청은 일본의 2022년 중서부태평양 참다랑어 쿼터가 기존 쿼터보다 732톤 늘어난 5,614톤이며, 동부태평양 쿼터는 257톤 늘어난 3,483톤이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 3년간 중서부태평양 성체, 아성체 참다랑어 쿼터의 20% 확대를 요청해왔다.

아성체 참다랑어 자원 보호로 인해, IATTC와 WCPFC 양측 모두 소형 참다랑어 쿼터는 변경하지 않았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8일자



중서부태평양 IUU 추정 참치 감소

추정 IUU의 대부분이 보고 관련 건

최근 태평양수산위원회(FFA)는 지난 12월 14일에 MRAG 아시아 태평양에서 수행한 '태평양 도서 지역에서 IUU 어업 정량화: 2020년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16년 후속 연구로 선망, 열대 연승(tropical longline), 남방 연승(southern longline) 어업과 같은 주요 어업 부문별로 주요 IUU 위험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7~2019년 동안 태평양에서 IUU 행위와 관련된 조업 또는 전제된 참치는 총 19만 2,186톤, 3억 3,349만 달러로 추정되어 지난 연구보다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2010~2015년 IUU 관련 추정치가 30만 6,440톤, 6억 1,616만 달러였다.

2017~2019년 IUU 추정량의 89%가 허가된 참치

선망선에서 어획량을 잘못 보고한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치로 환산하면 1억 5,226만 달러 정도이다. 잘못 보고된 건의 대부분은 가다랑어 과다 보고, 황다랑어·눈다랑어 과소 보고이다.

연승 어업은 IUU 추정량이 적지만 어획종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약 1억 8,100만 달러로 총 IUU 추정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무허가 어업은 전체 IUU 추정량의 5% 정도였다. 나머지는 잘못된 유형의 어구 사용, 폐쇄된 수역에서의 조업, 불법 전제 등이다.

FFA의 Manu Tupou-Roosen 의장은 보고서가 IUU 어업이 감소 추세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5일자

중서부태평양 열대성 다랑어는 남획 수준 상회

태평양공동체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한 상태

태평양공동체(Pacific Community)가 최근 발한 보고서 '중서부태평양 참치 어업: 2020년 개요 및 자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참치 어획량은 2019년 298만 7,934톤 대비 감소한 274만 3,310톤으로 추정된다.

2020년 선망 어업 어획량은 188만 1,706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69%를 차지했으며 2019년 210만 1,408톤 대비 감소했다.

남태평양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2020년 6만 4,862톤으로 사상 최고치인 2010년 8만 986톤 대비 20% 낮은 수치이다.

남태평양위원회(SPC) 수석 수산과학자인 Steven Hare는 "열대성 다랑어 4개종의 자원이 매우 건강한 상태로 간주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생물량이 남획 수준을 상회하는 좋은 수준이고 자원량 또한 남획 수준을 상회한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참치 4개종의 자원 상태는 건강하지만 상어, 새치류 등 부수어획 되는 종은 문제가 있다. Hare는 "평가 결과 미흑점상어, 장완홍상어의 경우 남획되기 쉬우며 장완홍상어는 심각한 남획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2월 23일자



라니냐 현상,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되며 늦은 봄 중립 전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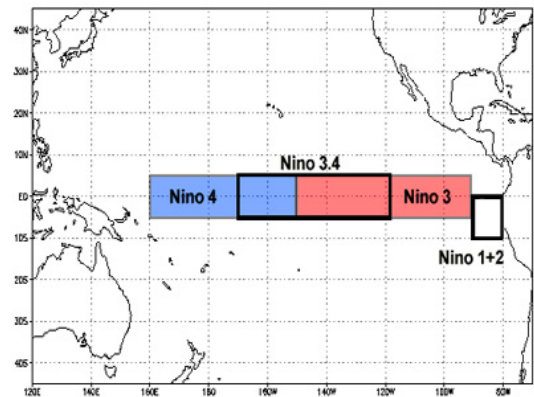
라니냐 현상이 거의 확실히 내년 4월까지 태평양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니냐 발생이 어획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동부태평양에서의 참치 어획량이 증가한다. 올해 10월말까지 동부태평양에서 참치 어획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3만 5,000톤 증가했다. 특히 황다랑어 어획량이 올해 내내 좋았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라니냐가 발생하면 중서부 태평양 중앙 수역의 수온이 더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어 참치는 더 서쪽 이동해 마이크로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 북쪽으로 향한다.

최근 마이크로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에서 황다랑어 어획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지만 가다랑어 어획량은 평소보다 적었다. 이러한 현상과 라니냐와의 연관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전망에 따르면 3.4지역(지도 참조)에서 라니냐 현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완화되지만 잔존해 있을 확률이 높다. 늦은 봄에는 중립 상태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6일자

피지, 자국 수역 보호 프로그램 시작

피지 수역 30% 보호 목표

피지가 미국 비영리단체 Waait Institute와 협력해 “Blue Prosperity(푸른 번영)”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피지 수역의 30%를 보호 지정하는 것이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Waait Institute와 피지 경제부, 수산부, 환경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Waait Institute는 프로그램에 기술적 지원을 이행하게 된다. 피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자국 수역의 100%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30%를 보호 지정하는 것이다.

Waait Institute는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비영리 단체로, 산호초와 수산업 복원을 위해 도서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Waait Institute에 따르면 해당 제휴협력은 피지 정부가 주도할 5년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양 공간 계획을 조성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며,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강화하려는 피지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0일자



11월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조업일수 감소

일일 어획량, 마셜제도·나우루·키리바시 증가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참치 어획량은 10월에 회복세를 보인 후 11월에 감소해 8만 7,941톤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2021년 중 2021년 9월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조업 강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11월 선망선들의 PNA 수역 및 공해 조업일수는 10월 4,000일에 비해 감소한 3,600일을 기록했다. PNA 수역 선박조업일수제도(VDS) 사용 일수는 3,123일로 2014년 이후 11월 중 가장 적었다.

조업 노력은 서부태평양에서 가장 높았다. 파푸아뉴기니(PNG) 수역에서의 조업일수가 1,250일로 가장 많았다. 마셜제도, 키리바시, 나우루 수역에서의 조업 활동도 비교적 많았다.

조업일수를 감안할 때 PNG EEZ에서의 생산량이

총 어획량의 40% 정도로 추정된다. 공해와 키리바시에서의 어획량도 증가했다.

일일 어획량은 마셜제도, 나우루, 키리바시에서 증가했고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마셜제도가 34톤으로 가장 많았고 PNG와 나우루가 각각 28톤을 기록했다. 공해는 22톤 정도였다.

11월 PNA 항구에서의 전재량은 어획량 감소에 따라 10월 4만 3,497톤에 비해 14% 감소한 3만 7,525톤을 기록했다.

전재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PNG와 마셜제도로 전체 PNA 항구 전재량의 71%를 차지했다. PNG 항구 전재량은 1만 4,000톤을 기록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22일

참치 업계·NGO, WCPFC 회의 결과에 실망해

MSC, 어획 전략 채택 재차 요구

다수의 참치 업계와 해양관리위원회(MSC), 퓨자선신탁, 퓨자선신탁 등 NGO가 지난 7일자로 종료된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회의 결과에 대해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가다랑어와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어획 전략 논의는 2022년 12월로 연기되었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 자원 관련 논의는 더욱 큰 차질이 발생했고, 관련 조치 논의는 2024년으로 연기되었다.

MSC는 WCPFC 회의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MSC는 WCPFC가 2022년 8월에 이틀간 과학

관리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해당 회의에서 2022년 12월에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어획 전략 권고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SC는 2023년 6월 이후에도 해당 두 자원의 인종이 유지될 수 있으나, 내년 12월 WCPFC의 조치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MSC는 황다랑어, 눈다랑어 어업이 2023년 6월 인증 정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9일자



日 재무성, 11월 참치 수입 통계 발표

참치류 냉동 반입량 22% 감소

(단위: 톤)

어종·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누계
날개다랑어	한국	37	-	53	35	113	27	45	49	9	-	4	368
	대만	355	-	130	688	-	64	335	1307	1185	1699	1606	5763
	바누아투	721	4	185	894	242	6	-	2	1	19	267	2074
	기타	81	6	21	52	9	36	290	938	402	105	592	1940
	소계	1194	10	389	1670	428	70	670	2295	1597	1824	2469	10147
황다랑어	한국	266	318	309	380	458	412	410	455	267	318	119	3593
	중국	321	205	655	253	326	254	451	770	186	420	129	3841
	대만	844	1211	1531	1702	1304	1102	1535	1143	1253	742	1214	12367
	필리핀	-	19	150	198	171	204	114	22	18	3	19	899
	인니	-	21	33	7	15	-	-	-	-	-	-	76
	미국	-	17	-	12	-	31	3	-	-	-	-	63
	바누아투	128	106	114	211	129	124	283	178	133	70	129	1476
	피지	11	27	17	112	31	48	27	13	65	25	-	376
	키리바시	43	33	32	31	202	291	248	58	124	26	8	1088
	마셜	104	-	54	-	25	-	257	189	830	303	-	1762
	기타	1286	1440	1236	569	625	1003	969	529	701	911	564	9269
	소계	3003	3397	4130	3477	3286	3469	4296	3357	3577	2816	2183	34808
눈다랑어	한국	85	32	308	158	168	296	352	110	73	36	55	1618
	중국	587	271	1125	573	327	549	918	1216	632	469	252	6667
	대만	1509	2427	2661	2627	1909	1487	2606	1903	1509	1602	1411	20240
	세이셸	469	1123	826	376	460	292	460	150	297	247	424	4700
	바누아투	156	319	510	576	328	55	48	117	149	174	93	2432
	기타	145	63	59	99	22	95	113	63	114	77	107	850
	소계	2951	4236	5489	4409	3212	2774	4496	3560	2773	2605	2343	36505
남방참	한국	354	-	-	-	-	40	-	-	-	-	550	394
	대만	56	32	50	23	2	5	1	24	51	143	697	387
	호주	-	-	-	-	-	-	715	1900	2863	452	7134	5930
	기타	-	-	-	-	-	-	-	-	-	-	-	-
	소계	410	32	50	23	2	45	716	1924	2914	595	8381	6711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월 11일자



日 도요스시장 해외 참치 입하 급감

엔저·코로나19 원인

일본 수산물 시장의 외국산 참치 입하가 최근 수년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엔화 약세와 코로나19 유행 영향 등으로 인해 일본 업체들의 구매력이 저하되면서, 소비가 왕성한 해외 시장으로 참치가 유입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쿄 도요스시장의 올해 해외산 선어 참치류 연간 입하량이 12월 중순 시점 약 1만 1,400마리에 그쳤다. 이전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보다도 27%나 적은 수준이며, 최다 수준인 2002년 입하량의 1/8 이하이다.

특히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은 눈다랑어 선어로, 인도네시아산과 호주산 수입이 급감했다. 지중해산, 멕시코산 참다랑어 수입도 급감했다. 일본 수산기업 마루하니치로는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선원을 모집하기 힘들다는 점과 유럽·북미 시장의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지목했다.

다른 한 수입업체는 『타 국가는 임금과 물가가 상승

해 참치 거래 가격도 상승한 반면, 지금의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미국의 참다랑어 거래 가격은 자연산, 양식산 모두 일본보다 20% 정도 높아진 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츠키지시장(도요스시장의 전신), 도요스시장의 최근 5년간 거래 가격은 멕시코산 양식 선어가 kg당 2,500 엔 전후, 동남아시아산 눈다랑어가 1,500 엔 전후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

현지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본에서 저렴한 회전초밥이나 양판점의 포장용 초밥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참치 입하량이 감소해도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 세계 각지의 질 좋은 참치가 거래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2월 21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수입 단가 1,000엔 근접

반입량 2012년 이후 최저

일본 재무성 통관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참치류 2021년 11월 수입실적은 선어·냉장 391톤(지난해 동기 대비 38% 감소), 7억 2,200만 엔(18% 감소), 냉동 1만 3,037톤(22% 감소), 137억 6,900만 엔(25% 증가), 가공품 3,934톤(27% 증가), 24억 9,300만 엔(35% 증가)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반입량은 2,343톤(63% 감소)으로 2021년 최저 반입량 기록을 경신했다. 월별 반입량이 2,500톤 미만을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최근 10년간 처음이다. 주력인

대만산 반입량은 1,411톤(49% 감소)으로 반감했다.

이로 인해, 11월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kg당 단가는 978 엔(49% 상승)으로, 10월 대비 46엔 상승해 kg당 1,000 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다만 눈다랑어 GG는 감소했으나 필렛은 증가 추세이다. 11월 필렛 반입량은 816톤(39% 감소)이나, 1~11월 누계는 1만 1,742톤(32% 증가)이다. 이 중 한국산이 6,589톤, 중국산이 3,851톤을 차지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2년 1월 11일자



세이셸 가다랑어 가격 1,330 달러

황다랑어 2,376 달러

1.8kg 이상 냉동 가다랑어 원어의 세이셸 가격은 현재 톤당 1,175 유로(1,330 달러)로, 1개월 전 대비 2% 하락했다. 12월에도 조업을 계속하는 소수의 어선은 준수한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좋은 가격에 어획물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주 세이셸 Ile Du항에 수용능력 1만 2,600톤의 신규 냉동보관 창고인 Central Common Cold Storage가 가동되었다. 이를 통해 타이유니온 산하 IOT 가공시설은 더 많은 재고를 비축할 수 있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어획량 감소가 발생해도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이후 조업을 재개하는 선망선단은 새로운 쿼터 하에서 황다랑어를 어획하게 된다. 현재 거래가 없기 때문에 10kg 이상 냉동 황다랑어 원어의 세

이셸 가격은 톤당 2,100 유로(2,376 달러)를 유지했다.

세이셸은 이미 인도양참치위원회(IOTC)로부터 2022년 3만 4,917톤의 황다랑어 쿼터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EEZ 조업 어선에 쿼터를 할당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체 쿼터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선망선 1만 1,000톤, 연승선·소형 선망선 9,000톤 등 지난해와 비슷하게 쿼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인도양 어획량과 거래량은 양호했다. 그러나 이들은 2022년에 참치 사이즈가 작아지고, 높은 운임으로 참치캔의 이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참치캔 산업이 수익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4일자

세이셸, 해외 국적선 입어료·등록비 인상 예정

내년 1월 1일부터 35% 인상

세이셸은 인도양에서 자국 국적으로 조업하는 선망선에 부과되는 연간 입어료·등록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주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어업권을 위해 35% 인상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Clarisse 청장은 어업 회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입어료를 연간 9만 유로에서 11만 5,000 유로(약 12만 9,983 달러)까지 인상했고, 등록비는 500 유로에서 5,000 유로(5,651 달러)까지 인상했다고 밝혔다. 35% 인상된 입어료를 지불하면 세이셸 EEZ 조업권과 어선이 자국 국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총 13척의

참치 선망선(주로 스페인과 프랑스 국적)이 세이셸에서 자국 국적으로 조업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 도입된 연간 비용은 타 참치 어장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PNA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선박조업일수제도(VDS)에 따라 매일 8,000~1만 2,000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세이셸의 연간 입어료와 등록비를 합산한 금액으로는 PNA 수역에서 어선 1척당 단 11~17일만 조업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8일자



IOTC, 2022년 황다랑어 어획 쿼터 발표

EU, 세이셸 등 감소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2022년 인도양 관할 수역 내 황다랑어 어획 쿼터를 발표했다.

IOTC는 올해 황다랑어 최대허용어획량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2021년 어획 데이터가 나오려면 6월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선망 어업의 경우 지난 12월 집계 완료), 2022년 어획 쿼터는 잠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IOTC 위원회는 지난해에 그랬듯이 올해에도 필요시 수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이하의 표는 2022년 전체 어획 쿼터를 나타내며, 어획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EU 선망선단 쿼터는 2021년의 7만 3,945톤에서 7만 3,146톤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황다랑어 회복 계획 기준년도인 2014년 어획량에 비하면 21%나 감소한 수치이다. 세이셸 선단(선망, 연승) 쿼터는 3만 359톤으로 13% 감소했다.

세이셸 연승선단이 수년간 황다랑어를 남획한 것이 원인이다. 모리타니 쿼터는 지난해와 거의 동등했다.

인도네시아, 이란, 마다가스카르, 오만, 소말리아, 인도는 황다랑어 쿼터 감축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다른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이란은 2019년 회복 계획(결의안 19/01)을 적용받는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망 2,308톤, 연승 1만 1,381톤의 쿼터가 적용되며 이란 자망 어업은 '14~'19년 동안 쿼터를 초과했기 때문에 쿼터를 배정받지 못했다. 마다가스카르, 오만, 소말리아는 2022년 어획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도는 2018년 황다랑어 회복 계획을 적용받는다. 또한 인도는 24미터 이상의 참치 어선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 어획 쿼터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	2022년 쿼터(톤)	감소(%)	국가	2022년 쿼터(톤)	감소(%)
호주	2,000		모리타니	10,490	
방글라데시	2,000		모잠비크	2,000	
중국	10,557	21	파키스탄	14,468	12
코모로	5,279		필리핀	700	
에리트레아	2,000		세이셸	30,359	10
EU	73,146	21	남아공	2,000	
프랑스령	500		스리랑카	31,066	12
일본	4,003		수단	2,000	
케냐	3,654		탄자니아	3,905	
한국	9,056	13	태국	500	
말레이시아	2,000		영국	500	
몰디브	47,195	10	예멘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3일자



인도양 쌍극자 현상, 참치 어획량에 영향

참치 서식지 변화 등 원인 지목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과학자들은 인도양 쌍극자 현상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쌍극자는 황다랑어·눈다랑어 연승 어업과 가다랑어 선망 어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쌍극자 현상은 인도양판 엘니뇨, 혹은 '인도니뇨'라고도 불리며 인도양의 동쪽부분과 서쪽부분의 해수면 온도 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쌍극자 현상이 발생하면 서인도양의 해수면 온도는 하락하고 동인도양의 해수면 온도는 상승한다.

10월 개최된 IOTC 열대참치 작업반(WPTT) 회의에서 발표되고 12월 초 과학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쌍극자는 서인도양에서만 눈다랑어에게 확연한 영향을 미친다. 황다랑어의 경우, 동서인도양 양쪽에서 쌍극자로 인해 CPUE(조업 기구 1대 1시간 당 어획량 마리 수)에 받는 영향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남인도양의 경우, 눈다랑어와 황다랑

어의 CPUE에 쌍극자로 인한 명확한 변화는 없었다.

한편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RD)와 세이셸 수산청의 과학자들은 또 다른 논문을 공동 발표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2017년~2019년 동안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최적 서식지가 좁아진 것과, FAD 등 해수면 어획 기구의 효율이 증가한 원인이 용존산소농도 수치 감소일 가능성이 있다.

선망 어업도 영향을 받는다. WPTT에 따르면 2019년 말~2020년 초 동인도양에서 강한 쌍극자 현상이 발생해 수개월간 어장의 수온이 내려갔다. 그 결과 가다랑어 어획이 어려워져 일본 어선들이 태평양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낳았다. WPTT는 2006년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쌍극자 현상이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23일

만타 가다랑어 가격, 금어기에 강한 상승

1,700 달러에 거래, 더 오를 수 있어

현재 에콰도르 만타에서 가다랑어(1.8kg 이상) 현물 가격은 톤당 1,700 달러로 몇 달 동안의 일시적인 하락 후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도착분에 현재 제시되는 가격은 톤당 1,800 달러이다. 아직 확인된 거래는 없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가공업자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대서양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된 참치를 가져올 정도라고 한다.

현재 두 번째 금어기(veda)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약 50%의 선망선이 항구에 계류하고 있다.

올해 10월말까지 동부태평양 참치 어획량은 지

난해 동기보다 3만 5,000톤 증가했다. 어종으로 보면 황다랑어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가다랑어 증가는 7,000톤 미만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어획량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타 소식통은 조업 상황이 좋지 않아 공급에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서부태평양에서 온 많은 운반선들이 만타항에 하역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금어기(~2022.1.19)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참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22일자



TUNACONS 회원사, FAD 20% 생분해성으로 전환 해수에 강한 바나나과 식물로 제작

TUNACONS(에콰도르 참치 선망선사들이 MSC 인증을 위해 공동 설립한 NGO) 회원사 선단은 최근 전체 FAD 중 약 1,400개를 생분해성으로 설치하면서 친환경 FAD 교체 최소 20% 목표를 달성했다.

TUNACONS의 친환경 FAD는 manila hemp 또는 abacá라고 불리는 에콰도르산 바나나과 식물 섬유로 만들어진다. TUNACONS는 4년간의 연구 끝에 해당 원료가 바다에서 60일 이상 견딜 수 있는, 해수의 알칼리성에 가장 강한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TUNACONS의 Guillermo Moran 이사에 따르면 현재 도입된 시제품은 abacá에 유기 고무 코팅을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4개월까지 견딜 수 있다.

TUNACONS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다에서 6~8개월까지 견딜 수 있는 생분해성 FAD 개발이다.

해당 친환경 FAD는 abacá 섬유 외에도 부유물을 만드는 데 목재가 사용되었고, 무게추를 만드는 데 체인이나 케이블 대신 바위가 사용되었다.

Morán 이사는 현재의 시제품이 기존 FAD와 동등한 집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Morán 이사는 해당 FAD의 가격이 기존의 2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TUNACONS는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선단 입장에서는 추가적 비용 부담이 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3일자

OPAGAC “생분해성 FAD 전면 도입 아직 일러” 설계상의 한계, 경제성 등의 이유로 시기상조 주장

스페인 대형냉동참치생산자연합(OPAGAC)에 속한 스페인 어업회사들이 생분해성 FAD를 전면 도입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OPAGAC는 자신들이 현재 조업 중인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3개 대양에서 생분해성 FAD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유일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 중 태평양, 인도양에서는 각각 2017년, 2019년부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대서양에서는 2022년부터 합성 물질 대신 직물, 대나무, 식물성 바닷줄 등 유기 물질 사용 FAD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OPAGAC는 성명을 통해 “최종 목표는 관련 생물종이 얽혀들거나 FAD의 성능을 지나치게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생분해성 물질을 함유한 FAD를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OPAGAC는 생분해성 FAD 도입 과정이 다수의 기대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으며, 생분해성 FAD를 연내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NGO의 주장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OPAGAC는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생분해성이나 설계 효율성, 경제적 생존성 등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0일자



주 2회 이상 수산물 섭취 시 경제적 효과

英 연구, 참치 등 수산물 섭취 건강·경제 효과 분석

최근 영국의 'Seafood 2040'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 증가가 소비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수백만 파운드를 절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Seafood 2040의 수장인 Neil Auchterlonie 박사는 초기 연구에 따르면 영국인이 목표 수준까지 수산물 소비를 늘릴 경우 사회경제적 이점이 수산물 구매 비용을 훨씬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는 더 많은 수산물 섭취가 영국은 물론 영국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Auchterlonie에 따르면 실제로 연간 13억~35억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참치 등의 수산물을 많이 섭취하면 건강한 생

활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비자가 병원비, 무급 휴가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제2형 당뇨병과 암으로 인한 건강 위험 감소라는 이점이 있으며, 수치상으로는 각각 주당 80 파운드(106 달러)~140 파운드(185 달러)로 평가된다. 연구에 따르면 『수산물 섭취를 주 2회로 늘릴 경우, 연간 3,600~1만 8,000명의 암 환자를 줄일 수 있다(사망률을 감안하면 1,700~8,500명의 생명을 살린 것과 같다).』

또한, 더 많은 수산물 섭취의 사회경제적 순효과는 연간 약 1,450만 파운드에서 5,820만 파운드로 평가된다. 즉, 소비자들의 건강 증진을 통해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정부 또한 절약할 수 있게 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0일자

Tri Marine, 솔로몬제도 인증서에 눈다랑어 포함 시도

기존 선망선·연승선·채낚기 인증 확대

미국 Tri Marine사는 선망선·연승선·채낚기를 포함하는 솔로몬제도에서의 MSC 인증에 눈다랑어를 포함시키려 한다고 발표했다.

적합성평가기관(CAB)인 SCS Global Services는 최근 두 가지 증서부태평양 인증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의전통지보고서 초안(ACDR, 총 6단계 중 2단계 초기 보고서)을 MSC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제도에서의 선망선·채낚기 가다랑어·황다랑어 어업에 관한 것이다. 이 어업은 2016년 스쿨 어업 인증 이후 지난해 9월부터 FAD 어업도 인증 받았다. SCS Global Services는 기

존 선망선·채낚기 인증에 눈다랑어 어업 추가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가다랑어·황다랑어와 마찬가지로 솔로몬제도 EEZ로 한정한다.

두 번째는 2019년에 인증 받은 솔로몬제도에서의 연승선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어업이다. 연승선 눈다랑어 어업 또한 솔로몬 EEZ에 한정된다. 해당 어업에는 Tri Marine International이 용선해 지역 기반으로 운영하는 중국, 대만, 피지 국적선이 포함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7일자



FDA, 참치·어류 히스타민 규제 강화

히스타민 허용치, 기존보다 50% 미만으로 감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2월 27일 간행한 지침에서, 어류에 함유된 히스타민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을 수정했다. 첫 번째로 수정된 지침은 참치에 함유된 히스타민이 '분해(decompose)'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치에 관한 내용이다. FDA는 당국이 조치를 취해야 하는 히스타민 기준치 수준을 2020년 적용된 안전 수준 50ppm(mg/kg)에서 35ppm 이하로 낮췄다.

두 번째로 수정된 지침은 수산물의 히스타민 검출량에 관한 것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다수의 참치나 어류 제품에서 검출된 히스타민이 200ppm 이상일 경우, FDA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결과를 비상 대응국(OEO)과 공동발병대응평가망(CORE)에 보고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제품 리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6월 출간된 미국 보건복지부와 FDA의 어류 및 수산물 위험 및 통제 지침 제4판에 따르면, 히스타민 수치가 500ppm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참치·어류 제품의 히스타민 허용치가 사실상 50% 미만으로 낮아진 셈이다.

이 지침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참치 원어, 냉장 완제품, 가공·포장 완료 후 최종 냉장 처리된 제품, 건조·샐러드 제품에 포함된 훈제·염장·브라인 처리 제품 등 모든 종류의 참치 제품에 적용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5일자

美 참치 어업자, 美 정부 태평양 영향력 확대 위해

지정학적 영향력 위해 도서국 개입 확대 요구

서태평양지역어업관리기구(Wespac)가 최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주 WCPFC 회의 결과에 실망한 미국 참치 어업자들이 미국 정부에 새로운 태평양 지정학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주 WCPFC에서 미국 대표단이 하와이 눈다랑어 및 아메리칸사모아 선단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쿼터 확대 협상에 실패한 후, Kitty Simonds Wespac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Wespac은 다수 연방 기관의 참여를 증대시킨 고위급 캠페인을 통해, 서태평양 어업 관련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연계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CPFC 회의에서 미국 측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또한 미국의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저하 및 타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지지 하락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 관계는 해당 수역의 어업자들에게 필수적이다. 미국이 20여 년 전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등 참치가 풍부한 대형 EEZ 보유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미국의 제안에 우호적으로 나서는 대가로 미국이 무엇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3일자



중국 연승 어업 MSC 인증 평가 시작

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인도양 어업 대상

참치 연승어선을 운영하는 중국 회사인 Zhejiang Ocean Family는 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인도양에서 가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황새치 어업에 대해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Ocean Family가 신청한 평가 단위(UoA)는 총 11개이다.

11개의 평가 단위 중 5개는 중서부태평양 어업이다. 공해와 키리바시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국적 참치 연승선 36척이 연관되어 있고, 이 중 16척은 열대성 다랑어(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20척은 태평양 날개다랑어를 목표 어종으로 한다.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Ocean Family 소속 선박의 총톤수는 400톤에서 900톤까지 다양하다.

동부태평양 어업 평가 단위는 2개로 눈다랑어, 황다

랑어 어업이다. 어선은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어선과 동일하다. 동부태평양 인증 신청은 공해에 한정된다.

인도양 어업 평가 단위는 4개로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황다랑어, 황새치이다. Ocean Family는 인도양에서 열대성 다랑어, 날개다랑어, 황새치를 목표 어종으로 하는 9척의 중국 국적 연승선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양 인증 신청도 공해에 한정된다. 인도양 황다랑어 어업에 대한 평가는 인도양에서 황다랑어가 남획 상태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인증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인증 보고서는 내년 10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6일자

中, 초저온 참치 운반선 신조

영하 55도에서 참치 보관 가능

중국 최초의 초저온 운반선 'Ocean Star호'가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산둥해양콜드체인개발(SDOCC)에 인도되었다. SDOCC는 중국 국영 기업인 산둥해운회사(Shandong Shipping Corporation) 산하 기업이다.

'Ocean Star'는 SDOCC가 일본 이토추물류(Itochu logistics)와 공동으로 일본 쿠키요 조선소에 의뢰해 건조된 선박이다. 전장은 117.5m이

며, 총톤수는 5,350톤이다. SDOCC에 따르면 해당 운반선은 대서양 지중해 수역의 참치 운반에 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선박은 필요한 경우 참치를 최대 섭씨 영하 55도까지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기존 운반선의 화물 보관 온도는 섭씨 영하 30도에서 영상 30도 사이가 한계였다.

* 기사 출처: Atuna, 2022년 1월 3일자



中 CNFC, 참치 연승선단 개선 작업 실시

남태평양 연승선단 개조·신조 예정

중국 참치 회사 CNFC는 자사 연승선단을 개선하고 확장하기 위해 약 4억 위안(6,270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다.

CNFC는 지난 4일 해당 계획이 자사의 연승선 조업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전반적 개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주로 남태평양에 어업 기지를 두고 있는 해당 선단은 날개다랑어가 목표 어종이며, 눈다랑어와 황다랑어도 어획한다. 어획한 참치는 주로 일본 시장에 수출된다.

CNFC는 노후 어선 일부를 대체해 40.6미터 규모 연승선 5척을 신조할 계획이다. CNFC는 또한 조업 능력을 높이고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Zhong Shui 717'호와 'Zhong Shui 805'~'808'호를 포함

한 10척의 선방선을 중국에서 개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은 3,200만 위안(502만 달러)으로 추정된다.

CNFC는 또한 선박이 운항하는 피지 주변의 수리 능력이 부족해 선체, 파이프라인, 밸브 상판 등이 부식되어 대대적 개조를 위해 선단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했다.

CNFC는 신규 참치 R&D·가공 센터, 참치 생명공학 분야 신규 사업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기에, 이러한 행보는 조만간 회사의 시장 입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9일자

中 CNFC, 추가 정부 보조금 받아

연간 보조금 수령 1,840만 달러

중국 최대 국영 어업 회사 중 하나인 CNFC는 최근 또다시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다. 이들이 올해 수령한 보조금은 총 1억 1,700만 위안(약 1,840만 달러)에 달한다.

CNFC 해외수산은 지배주주인 중국농업개발그룹(CNADC)으로부터 3,920만 위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난 13일 증권거래소에 밝혔다. CNADC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CNADC는 중국 국무원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직속 조직이다.

CNFC는 보조금 1억 1,700만 위안 중 8,670만

위안이 “국제적 성과상”이며, 생산 능력 구축에 대한 상금이라고 밝혔다. 보조금 중 1,087만 위안은 어업 기지 건설에 사용되었다. 1,596만 위안은 어선 개조에 할당되었으며, 300만 위안은 어업자원 조사에 할당되었다.

CNFC는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4,713만 위안으로 발표했다. 보조금 영향이 큰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Shanghai Kaichuang사는 지난 9월 개발 지원 목적으로 정부 보조금 3,668만 위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14일자



OPAGAC,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MSC 인증 취득 가다랑어, 눈다랑어 인증 취득 실패

스페인 대형냉동참치생산자연합(OPAGAC) 동부태평양 황다랑어 어업에 MSC 인증이 부여되었다. OPAGAC는 가다랑어, 눈다랑어 어업 인증 취득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동부태평양 OPAGAC FAD 선단 평가에서 황다랑어 평가만이 MSC 기준을 충족했다.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OPAGAC는 동부태평양 최초로 FAD 어업 MSC 인증을 취득했다. 이는 OPAGAC가 추진 중인 4개 대양(대서양, 인도양, 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FAD 어업 MSC 인증 중 첫 번째로 취득한 인증이다. 현재 OPAGAC의 인도양(가다랑어)과 중서부태평양(3개 어종 모두)의 MSC 최종 보고서는 공식 이의제기를 받았다.

OPAGAC의 FAD 어업 주 목표 어종은 가다랑어이

며, 소형 황다랑어는 주로 FAD 혼획으로 어획된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황다랑어는 선단 어획량의 약 9%만을 차지하는 반면, 가다랑어와 아성체 눈다랑어는 각각 40%, 18%를 차지한다.

OPAGAC가 동부태평양 가다랑어, 눈다랑어 FAD 어업 인증 취득에 실패하자, 현재 같은 수역에서 인증을 추진 중인 TUNACONS(에콰도르의 어업 회사들이 인증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 등의 어업 또한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TUNACONS 선단 규모는 OPAGAC 선단보다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어업이 취득하지 못한 인증을 이들이 취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9일자

NGO, 동북아 참치어업 개선 목적 190만 달러 확보 Ocean Outcomes, 연승 어업 개선 프로젝트

국제 NGO인 Ocean Outcomes는 동북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참치 연승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3년 동안 190만 달러를 지원 받았다.

Ocean Outcomes는 날개다랑어 연승 어업 개선 프로젝트(FIP)와 관련해서 FCF사, Bumble Bee사와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Ocean Outcomes는 중국, 일본, 한국 선주들과 이러한 협력 관계를 맺길 원한다.

Ocean Outcomes의 지속가능한 개선 프로젝트는 아래 내용들을 포함한다.

△현재 FIP와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에 연관된 참치 연승선의 더 나은 어업 및 부수어획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동북아 참치 대기업들 간의 참치 개선 조치 조화를 위해 협력 매커니즘 증진, △오픈서버 감시 범위와 부수어획 완화 기술 도입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립한 어선의 증가.

Ocean Outcomes에 최근 합류한 박두현 참치산업 고문은 동북아 지역의 어선단 및 산업 협회와 직접 협력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5일자



에콰도르, 참치산업 관련 신규 협정 다수 체결 추진

참치산업 영역 확대 목적

세계 2위 참치캔 수출국인 에콰도르가 자국 제품의 영역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향후 3년간 아메리카, 아시아 약 10개국과 참치 무역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Julio José Prado 에콰도르 생산대외무역부 장관은 지난 12월 2일 만타 지역 포럼에서 이러한 신규 협정이 에콰도르의 참치 무역 부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rado 장관은 『에콰도르는 수출 전략과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멕시코와 첫 번째 무역 협정을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협정 상대는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으로 이를 통해 에콰도르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등과 손잡게 된다』라고 말했다. Prado 장관은 아시아 시장과의 무역 협정에도 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Prado 장관은 그 외에도 캐나다,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등과 추가 협정을 모색 중이며, 나아가 한국, 러시아, 중국 등과 협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수년간 협상했지만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 Prado 장관은 현재 에콰도르가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개도국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전·갱신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현재 미국과 1단계 협정이 실행 중이며 내년 1월 중 2단계 협정을 체결해 장기 협정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에콰도르 참치 산업은 EU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에콰도르는 IUU 어업 문제로 인해 EU 옐로카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에콰도르의 시장 확대 노력은 EU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8일자

알바니아, 일본에 참치 수출 시작

지중해 양식 참다랑어 수출

알바니아가 일본에 양식 참다랑어 수출을 시작했다. Edi Rama 알바니아 총리는 지난주 타카다 미츠유키 일본 대사와 함께 현장을 시찰했다. 참다랑어는 Rozafa사의 운반선에 실려 가공 공장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Rozafa사는 선단 12척과 참치

등 수산물 가공 공장 4개를 보유한 알바니아 최대 수산 기업이다.

알바니아가 참치를 수출하는 국가는 2013년 3개국에 불과했으나 현재 27개국으로 증가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8일자일자



북서인도양 공해서 중국 오징어 선단 급증

참치 자원 불법 어획 우려 제기

노르웨이에 위치한 비영리단체인 Trygg Mat Tracking(이하 TMT)이 선박 활동 감시 포털 'Global Fishing Watch'의 데이터 분석 지원을 받아 작성한 논문에 따르면, 오만과 예멘의 EEZ에 접한 해당 수역의 선박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촬영 영상과 위성 자료 상세 분석 등이 담긴 TMT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해당 수역에서 급증하는 조업 어선 중 다목적 어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참치·소형 부어류(pelagic fish) 등 타 어종도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5월 드론 촬영 영상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선단의 갑판에서 대형 참치의 존재와 가다랑어로 보이는 어획물이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월말에 조업한 5척의 어선이 파키스탄 Gwadar항에 입항했으며, 약 30톤의 가다랑어, 황다

랑어, 점다랑어를 신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MT가 그린피스와 협력해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어장에 도착하자마자 AIS(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끄는 등 선상 식별 시스템을 매우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해당 어선들은 채낚기보다 그물을 주로 사용하며, 이는 혼획량을 증가시킨다.

문제의 어장은 참치 이외 어종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가 없다. 이로 인해 북서인도양 오징어 어업 규제는 전적으로 참여 기국에 의존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중국 선단의 어업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남서대서양의 상황과 유사하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2월 8일자, Atuna, 2021년 12월 9일자

중국 냉동 살오징어 어획량 15만톤

지난해 대비 약 30% 감소

현지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오징어 어업이 지난 11월 종어되었다. 이번 어기는 중국 정부가 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조업 해역과 기간 등을 제한했기 때문에, 총 어획량은 지난해 대비 약 30% 감소한 약 15만톤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중국 내 오징어 거래 가격은 어획 전망이 불투명했던 9~10월 상승했으나, 11월에 들어 중국 기업들이 춘절 연휴 전 재고의 현금화를 서두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안정화되었다. 그 결과 12월 중순 시점 200~300g 오징어 중국 내 거래 가격은 11월과

같은 톤당 2만 2,000 위안으로 유지되었다. 대체 품인 일렉소오징어의 어획량 호조로 인해 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15% 하락했다.

중국 선단의 아메리카대왕오징어 어획은 마리당 1kg 이하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12월 중순 시점 중국 내 대왕오징어 가격은 톤당 8,000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10% 하락했다. 마리당 200~300g 아르헨티나 일렉소오징어 가격은 톤당 2만 850 위안으로, 지난해 대비 18% 하락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2월 17일자



美-러 2022년 필렛 생산량 격차 좁혀질 전망

러시아 필렛 생산량 10만톤에서 증가 예상돼

내년 알래스카 명태 TAC 감축으로, 러시아 명태 필렛 블록 생산량이 미국 생산량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년 A시즌 명태 PBO(가시 제거) 필렛의 계약가격은 톤당 4,000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명태어업자협회(PCA) 회장 Alexey Buglak은 2021년 러시아 필렛 블록 생산량을 약 10만톤으로 예상했으며, 2022년에는 생산량이 15~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2022년 미국의 필렛 블록 생산량은 TAC 감축으로 인해 2020~2021년 14만~15만톤 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PBO 생산량은 미국을 이미 추월했다. 딥스킨과 PBI(가시 미제거) 생산

까지 합하면 미국의 필렛 생산량이 더 많다.

2021년 미국 필렛 총 생산량은 13만 9,630톤이다. 2022년 미국 필렛 생산량 예상치는 TAC 삭감에 따라 16% 감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11만 7,289톤이 된다. 따라서 Buglak의 예상대로 러시아 생산량이 10만톤에서 15~20% 증가할 경우, 미국 생산량에 근접하거나 근소하게 많은 수준이 된다.

한 미국 업계 관계자는 어획물의 어체 사이즈가 PBO 생산량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체가 작다면 딥스킨(껍질, 지방 제거) 생산에 주력하게 돼 그만큼 PBO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17일자

러시아 어업 허가 규정 변경, 큰 영향 줄수도

명태 관련 어선의 최대 45%, 허가 지연 발생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어업 허가 관련 신규 규정에 따르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외부에서 건조된 어선은 정부에서 어업 허가증을 발급받기 전에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관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문서 목록을 정한 규정은 없다. 또한, 1991년 소련 해체 이전 소련에서 건조된 어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내년 A시즌의 어업 중단을 피하기 위해 전구러시아어업협회(VARPE)와 명태어업자협회(PCA)는 어업 분야를 담당하는 부총리인 Victoria Abramchenko와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했다.

VARPE에 따르면 명태 어업과 관련된 어선은 약 120~125척이며 이 중 45%는 어업 허가에 있어 잠재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수산청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주들이 12월 30일까지 어업 허가를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산청에 따르면 12월 21일 현재 올해 러시아 명태 어획량은 167만 4,000톤에 이른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2월 22일



러시아 수산업계, 대기업의 시장 통제로 기로에 놓여 대기업 쿼터 경매 확대 등 제안, 중소기업 압박

러시아 수산업계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 대기업이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하고 국가·정부에 더 많은 쿼터를 요구하는 반면, 소규모 기업은 쿼터 및 시장 구성 방식의 대대적 변화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 자국 기업에 유리한 시장 상황과 투자 쿼터제가 맞물려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 해양 뉴스 매체 PortNews의 개발 이사 Nadezhda Malsheva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산업계 외부 기업들이 신규 진입하고, 업계 내 기업들은 계속해서 경쟁업체를 인수하는 상황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FC 소유주 Gleb Frank는 게 쿼터 경매와 유사한 경매를 통한 쿼터 재분배를 제안했다. 이 제안으로 인해 명태어업자협회(PCA)는 RFC를 축출했고 RFC는

MSC(해양관리협의회) 인증서를 박탈당했다. 하지만 얼마 걸리지 않아 RFC는 PCA 회원 자격을 되찾았다.

한편, Norebo의 수유주인 Vitaly Orlov는 투자 쿼터를 신규 선박에만 할당하고 톤수에 따라 어선 수명을 15~35년으로 제한하며 수명에 다다르면 10년 이내에 선박 대체를 요구하는 등의 과감한 제안을 담은 서한을 어업 분야 담당 부총리인 Victoria Abramchenko에게 송부했다. Orlov는 또한, 고부가가치 수산 제품을 제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저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안도 제안했다.

이러한 대기업의 압력으로 인해 러시아 어업 부문은 대기업과 다른 기업, 두 파벌로 분열되고 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월 6일자

다렌 항구, 러시아 운반선 재개방 칭다오 재개방도 멀지 않은 듯

항구를 운영하는 국영기업인 Liaoyu Group은 1월 10일 회사 위챗에 “Liaoyu 항구는 냉동 수산물 운반하는 러시아 운반선의 운항을 재개한다”라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중국 현지 언론은 이번 조치를 러시아 정부와 중국 당국 간의 협상으로 이루어낸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의 또 다른 수산물 가공 허브인 칭다오의 재개방이 멀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0년 가을, 다렌과 칭다오 당국은 러시아 운반선의 하역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부산이 명태 H&G를 러시아 운반선에서 컨테이너로 옮기는 새로운 허브가 되었다. 그러나 2021년 7월 중국은 한국 항구를 통해 환적되는 제품에 대한 러시아 어획증명서의 승인을 중단했다. 따라서 러시아 H&G는 한국의 위생증명서를 받아 재수출되고 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11일자



러시아 연육 생산 증가, 가격 영향 없을 것

생산량 2026년까지 30% 증가 예상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Pacific Rim 그룹의 영업이사이자 연육 제품 관리자인 Willem Appeldorn은 『혹자는 내년엔 명태 연육 가격이 러시아 공급 증가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현재 재고가 부족한 상황으로 더 많은 공급은 가치 창출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육 가격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더해 물류, 포장, 원재료, 노동 비용의 증가, 물가 상승으로 올해 인상되었고 내년엔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올해 알래스카 명태 수리미 생산량은 24만톤으로 예상된다. 미국 생산량이 19만 4,000톤으로 과거 20만~24만톤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본이 4만톤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5,000톤 정도로 예상된다.

내년 러시아 수리미 생산량은 대략 25,000~30,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Willem Appeldorn은 장기적 예측이 유지된다면 2026년 알래스카 명태 총 생산량은 현재 수준보다 30% 증가한 31만톤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연육 시장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RFC사는 올해 공모전에서 연육 생산을 시작했고 리투아니아의 대기업 Viciunai를 비롯한 고객들과 첫 계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RFC사는 일본수산(니스이)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엔 최대 2만톤의 연육 제품을 일본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2월 20일자

강력한 수요로 전 세계 수리미 생산량 증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8.2% 증가

올해 3분기까지 전 세계 연육 생산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미국 알래스카명태생산자협회(GAPP)가 의뢰하고 시장조사업체 Urner Barry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 세계 연육 생산량은 약 68만 803톤이다. 원료가 되는 어종은 명태, 잉어, 눈다랑어, 민어, 임연수어, 정어리 등 18개종이다.

중국에서 가공된 열대성 어종으로 만든 연육 생산량이 39만 9,728톤(지난해 대비 8.9% 증가)으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알래스카 명태로 만든 연육이 18만 7,769톤(지난해 대비 18.5% 증가)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잉어, 일본 명태, 민대구가 각각 2만 9,016톤, 2만 7,320톤, 2만 5,247톤이었다.

GAPP Craig Morris 협회장은 “현재 연육에 대한 강력하고 장기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28일자



NPFMC, 베링해 명태 TAC 19% 감축 승인

태평양대구 쿼터 23% 증가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는 연구 자문단의 조언에 따라, 2022년 동베링해 알래스카 명태 어업 TAC를 110만톤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쿼터에서 19% 감축된 수치이다.

위원회는 또한 2022년 동베링해 태평양대구 쿼터를 지난해 대비 23% 증가한 13만 6,466톤으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알류산열도 태평양대구 쿼터는 지난해와 동일한 1만 3,796톤으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수년간 태평양대구 어획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11월 발표된 NPFMC 자원어업평가(SAFE)

보고서에 따르면 태평양대구의 산란 생물량은 2022년 26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평가로 인해 지난 수년간 감소 추세였던 생물학적 허용 어획량(ABC)이 증가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쿼터를 설정하는 것은 미국 상무부이지만, NPFMC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권고 수치가 다음해 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2월 14일자,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14일자



알래스카만 명태 TAC, 14만톤으로 증가

대구 39%, 은대구 27% 증가

북태평양어업관리위원회(NPFMC)는 2022년 알래스카만 명태 TAC를 지난해 대비 2만 7,890톤(약 25%) 증가한 14만 1,117톤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동베링해-알류산열도 명태 TAC가 약 111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23만 6,110톤(19%)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이러한 감소를 보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또한 알래스카만 태평양 대구 TAC를 지난해 대비 39% 증가한 2만 4,111톤으로 설정하고, 은대구 TAC를 27% 증가한 2만 2,794톤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동베링해-알류산열도 태평양 대구 TAC는 23% 증가한 13만 6,466톤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15일자,

미나토신문, 12월 16일자



RFC, 올해 말 명태 H&G 생산 중단 예정

명태 PBO 가격 톤당 4,500 달러까지 상승 예상

러시아수산회사(RFC)는 올해 말 명태 H&G 생산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 명태 PBO(가시 제거) 필렛 가격은 톤당 4,500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연육 수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RFC의 예상대로 PBO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는 지난해 B시즌 대비 700달러(17%) 상승하는 셈이다. 이는 역대 최고가인 2009년 A시즌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RFC 신형 선상가공선은 PBO, 연육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2022년 2척의 신조선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RFC는 지난해 1척의 H&G 선상가공선을 필렛용으로 개조했다.

RFC는 러시아 전체 H&G 생산량이 2022년 40만~45만톤으로 예상되며, COVID-19 방역에 민감한 중국 물류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상 수치는 2021년 생산량

인 54만톤과 2020년 생산량인 70만톤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H&G 생산 감축으로 인해 중국 가공업자 입장에서는 더블프로즌(double-frozen, 러시아에서 냉동 상태로 중국에 운송되어 가공되는 2회 냉동 제품) 필렛 블록 원재료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러시아산 필렛 생산량은 2021년 10만톤에서 2022년 10만~11만 5,000톤으로 증가해 명태 TAC가 감소할 예정인 미국의 생산량과 엇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Karpukhin은 말했다.

Karpukhin은 미국, 러시아의 쿼터 감소, 세계적인 수요 증가, 중국 검역 문제와 맞물려 2022년 PBO 블록 CFR 가격은 톤당 4,500 달러 가량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10일자

중국, 2022년 수산물 수입 관세 잠정 인하

알래스카 명태, 연어, 대구 등 적용 대상

중국이 2022년 1월 1일부터 알래스카 명태, 대구, 대서양 연어 등을 포함한 다수 품목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

중국 재무부는 내년 초부터 954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MFN) 적용 관세보다도 낮은 한시적 수입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대서양 연어 신선·냉장 수입품의

2022년 세율은 MFN 세율인 10%보다도 낮은 7%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서양 연어 냉동 수입품은 MFN 세율보다 2% 낮은 5%가 적용된다. 알래스카 명태 냉동 수입품은 MFN 세율보다 5% 낮은 2%의 세율이 한시 적용된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2월 16일자



러시아 2021년 어획량, 500만톤 근접

11월 29일 시점 약 465만톤

일본 홋카이도 기선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의 어획량은 11월 29일 기준 465만 3,150톤으로, 지난해 대비 0.8% 증가했다. 올해 말에는 어획량 500만톤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어장인 극동 수역은 청어 어획량이 8% 증가한 35만 2,440톤을 기록했다. 명태의 경우 7% 감소한 160만 2,810톤을 기록했다. 국제협정수역·공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14% 감소했고, 발트해의 경우 7% 감소했다.

한편 북부 수역은 5% 증가한 49만 1,660톤을 기록했다. 중심 어종인 대구 어획량은 8% 증가한 31만 4,970톤을 기록했다. 외국 수역, 카스피 해 어획량은 각각 23%, 28% 증가했다.

러시아 수역별 어획량 (11월 29일 기준)		
	수량(톤)	전년 대비
극동 수역	3,326,110	99%
북부 수역	491,660	105%
발트해	69,440	93%
아조프해·흑해	57,170	97%
카스피해	83,040	128%
외국수역	334,400	123%
국제협정수역·공해	242,900	86%
기타	48,430	
합계	4,653,150	101%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2월 13일자

RCEP 발효, 중국 수산 업체 경쟁력 강화

RCEP 활용한 수출 시작

중국 수산 업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에 따라 일본, 한국(2월 1일 발효), 호주, 뉴질랜드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중국 현지 언론은 RCEP로 인해 향후 15년에 걸쳐 수산 가공품 및 가공 원재료에 대한 관세가 점진적으로 '0'으로 낮춰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마루하니치로와 중국 저우산에 위치한 국영 수산회사가 합작해 설립된 Xingye Industry Group은 냉동 연육 50톤을 일본으로 수출하며

최초의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냉동 연육 관세는 RCEP 첫해에 0.2% 인하된 3.3%이며 1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0'로 인하될 것이다.

중국 최대 상장 수산물 회사인 Zhanjiang Guolian Aquatic Products도 생선 구이, 가재, 흰다리새우 등을 RCEP 활용해 관련 국가로 수출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5일자



Norebo, 러시아 조선소 인수

6,100만 달러 투자 예정

러시아 최대 어획 쿼터를 보유한 Norebo 홀딩스가 Petropavlovsk-Kamchatskiy 조선소를 인수했다.

거래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Norebo는 정박 지 복구, 수리 기지용 건물 건설, 어선 수리 및 유지 보수, 선원 교체 등에 45억 루블(약 6,120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orebo의 홍보 및 국제업무 담당자인 Sergey Sennikov는 Norebo 측이 노르웨이, 한국, 중국,

폴란드 등의 선박 보수, 정비 시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러시아에도 이러한 시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란 설명했다.

전러시아수산물수출자협회(VARPE)는 미래에 러시아 어업 회사들이 Norebo의 뒤를 이어 선박 정비 사업을 시작하는 추세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1년 12월 16일자

러시아 극동 최대 냉동 저장시설 완공 직전

약 1만 5,000톤 저장 가능

러시아 어업·가공업체 Dobroflot이 추진하는 대형 냉동 보관시설 건설 작업이 90%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2022년 1분기에 시운전될 예정이다.

연해주 볼쇼이 Kamen에 위치한 해당 시설은 9,000평방미터 규모이며, 영하 25도에서 약 1만 5,000톤의 냉동 제품을 저장할 수 있다.

Dobroflot은 해당 시설에 약 13억 루블을 투자했다.

이들은 해당 저장시설을 지역 수산 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필수 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부두에 인접해 있어 연해주 Dobroflot 육상 가공장으로 원료를 운송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앙 지역으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물류의 효율성과 콜드체인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1년 12월 23일자

Norebo, 수산물 가공 장비 그룹 지분 과반수 인수

아이슬란드 Velfag 그룹

Norebo는 수산물 가공 장비를 생산하는 아이슬란드 Velfag 그룹의 지분을 과반수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Velfag는 1995년 아이슬란드 수산업 유지보수

서비스 회사로 시작해 현재 자체 기계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월 5일자



러시아 명태 운반선, 평택항에서 전재 가능

중국 규제로 인해 러시아 명태 수출 허브로 각광

‘트램퍼(tramper)’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러시아 냉동 운반선이 12월 13일부터 평택항에서 명태 등 수산물을 전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러시아 수산청과 평택항에서 냉동 컨테이너에 보관된 냉동 수산물의 전재를 허가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운반선이 입항할 항구가 추가되면 주요 항구인 부산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다롄과 칭다오 등의 항구에 러시아 운반선이 직접 하역하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러시아 명태 부문에 큰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부산은 러시아에서 명태 H&G(머리, 내장 제거)를 다롄과 칭다오 등의 가공시설로 운반하기 전에 보관하는 허브로 떠올랐다. 부산은 H&G 외에 러시아산

필렛을 유럽과 미국 등지로 배송하기 전에 보관하는 허브로서도 이용되고 있다.

러시아 어업회사 Okeanrybflot의 Dmitry Gusev 영업이사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12개월간 러시아산 어획물의 주요 허브였고,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Gusev는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 물량이 2배로 증가했으며, 다가올 A시즌에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러시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부산항은 미국과 유럽 공급망 물류가 우선이기 때문에, 러시아 물류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Gusev는 중국의 운반선 금지 조치가 해당 분야에 문제를 유발하는 주 원인이며, 2022년 말까지 해당 조치는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16일자

2022년 러시아 냉동 수산물 가격 안정적으로 시작

극동지역 명태 85~105 루블

극동 지역 핑크 연어와 태평양 청어의 현물 판매 가격은 각각 kg당 140~165 루블, 50~70 루블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명태와 태평양 대구 현물 가격은 상승해 각각 kg당 85~105 루블, 170~190 루블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북서부 지역 대구, 연어, 청어 현물 가격은 각각

kg당 225~255 루블, kg당 185~215 루블, 70~110 루블로 동일했다.

중부 지역의 명태, 대서양 고등어, 연어 현물 가격은 각각 kg당 110~130 루블, 130~150 루블, 170~215 루블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10일자



日 '21년 공치 최종 어획량 1만 8,291톤

지난해 대비 38% 감소...역대 최저치

일본 전국공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의 지난 7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집계된 일본 최종 공치 어획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 감소한 1만 8,291톤으로, 2020년의 역대 최저치 기록(2만 9,566톤)을 경신했다.

홋카이도에 양륙된 공치는 1만 1,945톤으로 3% 증가했으나, 혼슈에 양륙된 공치는 65% 감소한 6,346톤이다. 총 매출액은 전국 기준 113억 4,976만 엔으로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고, 전국 평균 단가는 10kg당 6,205 엔으로 29% 상승했다. 전국 어항에 공치를 양륙한 선박 척수는 14% 감소한 1,293척이다.

이번 어기는 7월 상순부터 공치 유망 어업이 시작되었으나 사상 처음으로 어획 없이 끝났다. 8월 하

순 이후 붕수망 어업이 시작되면서 동 어업에서 공치가 어획되기 시작했으나, 어장은 대부분 북태평양 공해상에 형성되었고, 러시아 및 일본 수역에는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어획량 추세는 어기 시작~10월 말 9,440톤(지난해 동기 대비 27% 감소), 11월 8,459톤(41% 감소), 12월 392톤(84% 감소)으로, 대체로 2020년 어기 대비 대폭 감소했다.

일본 공치 최다 어획량 기록은 '08년의 34만 3,000톤이다. 공치 어획량은 '81~'14년까지 20만 톤을 경계로 흥어 여부가 갈렸으나, 2015년 이후 10만톤에 못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최저 어획량을 기록하는 흥어가 이어졌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월 11일자

일본-러시아 수역 연근해 어업협정 체결

2022년 상호입어 합의...공치 쿼터 5.6만톤

일본 수산청은 지난 12월 28일 일본-러시아 수역 연근해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고 발표했다. 2022년 양국의 상대국 200해리 내 수역 쿼터는 지난해부터 1만 5,000톤씩 감소해, 각각 7만 5,000톤이 되었다. 일본의 러시아 수역 공치 쿼터는 2021년 대비 20% 감소한 5만 6,424톤(지난해 7만 927.4톤)이 되었다.

살오징어 쿼터는 5,619톤(지난해 5,814.25톤)으로 감소했고, 대구 쿼터는 1,600톤(810톤)으로 증가했다. 총 척수는 지난해와 같은 585척이다.

러시아의 일본 수역 쿼터는 고등어 4만 5,000톤(지난해 5만 1,500톤), 정어리 2만톤(2만 3,500톤), 수염대구 1만톤(1만 5,000톤)으로 감소했다. 총 척수는 지난해와 같은 89척이다.

일본 어선의 러시아 수역 유상 조업(입어로 지불)의 경우, 어획량 694.66톤(지난해 1062.2톤), 총 척수 22척(지난해 52척), 보상금 2,694만 엔(4,112만 엔)으로 결정되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2년 1월 6일자



日 JAFIC “수온 상승이 흥어의 원인”

JAFIC, 올해 일본 어업 동향 정리

JAFIC에 따르면 일본 주요 어항의 올해(11월 말 시점) 어종별 어획량은 ▽정어리 55만톤(지난해 대비 4만 5,000톤 감소) ▽고등어류 30만2,000톤(2만 9,000톤 감소) ▽살오징어 선어 1만 5,000톤(50% 감소) ▽살오징어 냉동 6,200톤(지난해 대비 30% 증가, 지난 5년 평균 대비 30% 감소) ▽꽂치 1만 7,000톤(역대 최저) ▽가다랑어 채낚기 선어 4만톤(94% 증가) ▽전갱이 1만 1,000톤(6만 2,000톤 감소) ▽날개다랑어 2만톤(46% 감소) ▽빨강오징어 3,600톤(50% 감소)이다.

올해 여름은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부) 해역과 동해 북부 수온이 지난 수년 대비 4~6도 상승하는 고수온을 기록했다. 남쪽에서 오는 쿠로시오(黒潮) 해류가 예년 대비 강했기 때문에, 북쪽에서 오는 오야

시오(親潮) 해류가 일본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 결과, 태평양 쪽의 정어리나 참고등어가 평소보다 러시아 방면에 가깝게 이동해 이들의 어장이 일본 근처에 형성되지 않았다.

꽂치 어획은 9월까지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에 비해 호조였으나, 10월 이후로 감소 추세였다. 꽂치의 어체 상태는 지난해보다 좋았으나, 어장이 일본에서 먼 동쪽에 산발적으로 형성되었고, 악천후가 심해 어획량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꽂치의 자원량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꽂치의 회유 경로도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방 수온 상승으로 인해 먹이의 종류와 양이 변해서 꽂치의 성장과 회유가 늦춰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2월 23일자

세계 수산물 무역, 12% 증가한 1,700억 달러

수산물 생산량 1억 7,800만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식량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수산물 무역은 수출액 기준 1,700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시점 전망치인 1,498억 달러에서 약 14% 증가한 수치이다. 코로나19 대책이 세계 각국에서 완료된 것에 따른 소비 확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등이 원인으로 관측된다. FAO 식량 수급 전망은 매년 6월, 11월에 발표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임 상승·지연, 공급망 혼란,

수요 증가로 주요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양식어류 가격 상승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FAO는 자연산, 양식산 모두 생산량 늘어날 것으로, 총 생산량은 2% 증가한 1억 7,800만톤으로 예측했다. 이 중 식용은 2.1% 증가한 1억 5,790만톤,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지난해 대비 0.3kg 증가한 2.1kg으로 예측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2월 13일자



日 11월 수산물 가격, 일반물가보다 상승폭 커 수산물 부문 지난해 대비 5.2% 상승

2021년 11월 대부분의 일본 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산물이 일반물가 상승을 앞질렀다.

일본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물가 정보에 따르면, 일반물가가 지난해 동기 대비 0.6%, 2021년 10월 대비 0.3% 상승했다.

어류 및 수산물 소비자 가격은 2020년 11월 대비 5.2%, 2021년 10월 대비 1.5% 상승했다. 신선 어류 및 해산물은 2020년 11월 대비 8.0%, 10월 대비 2.4% 상승했다.

수산물 부문은 2020년 11월, 2021년 10월 대비 대부분의 종에서 가격이 상승했다. 참치류 가격은 2020년 11월 대비 14.1%, 전월 대비 3.1%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오징어는 각각 4.8%,

꽂치는 각각 19.2%, 0.9% 상승했다. 참고등어 가격은 2020년 11월 대비 4.1%, 2021년 10월 대비 4.3% 상승했다.

일부 어종은 하락세를 보였다. 고등어 가격은 2020년 11월 대비 1.7%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4.9% 감소했다.

가공 수산물의 경우,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저항으로 변동이 적은 편이었다. 가격에 민감한 품목 중 하나인 어육 제품 가격은 2020년 11월 대비 0.7% 상승했고,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그러나 수산 가공 대기업인 일본수산물과 마루하니치로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2년 1월 3일자

日, 해양 미생물에서 오메가-3 지방산 추출 산업 수준의 생산 가능성 발견해

일본수산(주)(닛스이)는 지난 12월 10일, 해양 미생물에 의한 DHA 생합성 경로를 해석하고, 그 생합성 경로를 담당하는 일부 유전자를 파괴하는 식으로 DHA 이외의 오메가-3 지방산인 EPA(에이코사펜타엔산)와 n-3DPA(도코사펜타엔산)를 추출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의 산업 단계 확립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일본 규슈대, 미야자키대, 고난대와의 공동 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오메가-3 지방산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양 미생물 라비린툴라(Labyrinthulea, 망형충)류의 DHA 생합성 경로를 조사한 결과, 파리에티키텐트리움(Parietichytrium)속의 라비

린툴라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폴리케티드 복합체에 의한 생합성 경로를 거치지 않고 오메가-3 지방산을 생합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연구진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 생합성 경로를 담당하는 일부의 유전자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 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닛스이는 이번에 밝혀낸 새로운 생합성 경로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미래에는 유전자 변형에 의지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오메가-3 지방산 공급원의 획득이 목표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미나토신문, 2021년 12월 13일자



태평양 횡단 컨테이너 운임 다시 상승할 전망

中 오미크론 변이 확산 원인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 중 하나인 중국 닝보를 강타한 COVID-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최근 하락세였던 태평양 횡단 운임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해운거래소와 Freight가 발표한 세계 컨테이너운임지수(FBX)에 따르면, 아시아와 미국 서부 연안 간 운임은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인 1FEU(40피트 컨테이너 1개 단위)당 1만 2,783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닝보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발생해, 2월 1일 중국 춘절 연휴 공장 가동 중단을 앞두

고 선적을 서두르는 관련 업체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다.

Fearnley Securities 분석에 따르면 중국 오미크론 확산은 향후 수 주간 컨테이너 이동을 더욱 방해해 전세계 화물 처리량을 제한하고 단기적으로 요금에 더 큰 변동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우려는 미국 서부 연안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인 LA와 롱비치 항만 노동자 사이에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2년 1월 11일자

프랑스·덴마크서 트롤 혼획 방지 기술 연구

카메라·센서·분석 소프트웨어로 어획물 확인 가능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최신 기술을 이용해 혼획을 방지하는 프로젝트 연구 2개가 진행 중이다. catch 프로젝트 또한 같은 연구를 수행 중이다.

프랑스 로리앙에 위치한 Ifremer 연구 센터는 남브르타뉴대학 및 첨단기술 센서 전문 기업 Marport와 협력하여 'Game of Trawls'라는 스마트 트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Ifremer 연구원 Julien Simon에 따르면 스마트 트롤은 최신 AI 기술 및 센서 연결망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어업자를 위한 의사결정 도구가 될 예정이다.

해당 기기에는 카메라, 센서, 그리고 강력한 분석 소프트웨어가 장비되어 있다. 어업자는 이를 통해 어획물의 어종, 크기, 양 등의 정보를 실시

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협력자인 Apak사의 수장 Eric Guygniec은 자신들의 목표가 이미 선상에 올라온 어획물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수중에서 분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Guygniec은 자신들의 도구를 통해 그물에 들어온 어류의 어종과 크기를 파악하고 어획 여부를 실시간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Ifremer는 또한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해양 생태계를 파악하고, 목표 어종의 존재 여부에 따라 어획 모드와 항해 모드를 결정하는 기술도 시험 중이다.

* 기사 출처: fishing news, 2022년 1월 6일자



중국 원양어업 성장을 둔화

2020년 생산량 232만톤

중국 조사 기관 Qianzhan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원양 생산량은 2010년 100만톤에서 2014년 200만톤으로 두 배 증가했지만 2020년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총생산량은 232만톤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2019년에 비해 1.8% 감소한 239억 위안(38억 달러)이다.

중국 농업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원양 생산량은 오징어(52만 300톤)와 참치(32만 7,400톤)가 가장 많았다. 오징어와 참치는 각각 총생산량의 22.5%, 14%를 차지했다. 원양 오징어 생산금액은 2012년 135억 위안(21억 달러)에서 2018년 262

억 위안(42억 달러)으로 증가했다.

원양 어획량 증가와 함께 중국 국내 소비 비중도 상승했다. Qianzhan에 따르면 2020년 원양 어획량의 68%, 157만톤이 국내 가공 및 판매를 위해 중국으로 반입되었다. 해외로 수출된 양은 74만 3,000톤이다.

이는 중국 내수 수요 증가, 특히 고부가가치 수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 호텔 협회는 단백질 소비에서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2월 22일자

페로제도 Krossbrekka, 88미터급 트롤선 신조

2024년 1월 인도 예정

페로제도 Varðin Group 산하 어업 회사인 Krossbrekka가 자사 트롤선 Finnur Friði를 대체하기 위해 Karstensens Skibsværft 조선소에 88미터 규모의 원양 선망 트롤선 신조를 주문했다. 인도 시기는 2024년 1월이다. 해당 신조선의 가치는 3억 4,000만 크로네로, 현재까지 해당 조선소에서 성사된 최대 규모의 계약이다.

해당 어선의 추진 시스템에는 특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고, 최종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구성이 검토되었다. 해당 최종안에는 1479kW의 Brunvoll 수중 콤비 스러스터(combi-thruster)와 측면 스러스터(side

thruster)가 포함된다.

선주 측 요구에 따라 청어, 고등어, 청대구(blue whiting), 열빙어(capelin) 조업 시 kg당 산화질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신형 Finnur Friði의 선체는 폴란드 Karstensen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선상 시스템은 아직 전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3중 1100kW+80kW식 냉각 해수 처리장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2년 12월 23일자



中 수산물 생산·소비 증가 추세 이어가

2022년 수산물 생산량 6,610만톤으로 증가 예상

중국 리서치 기업 Zhong Shang Chan사에 따르면,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2021년 총 6,570만톤에서 2022년 6,61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총 수산물 생산량은 2017년 6,450만톤에서 2020년 6,540만톤으로 증가했다.

해당 기업에 따르면 자연산 어획물과 해수면 양식을 모두 포함한 해양 수산물 생산량은 2020년 3,310만톤, 2021년 3,300만톤, 2022년 3,290만톤으로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2020년 중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약 35.6%에 해당하는 1,170만톤은 자연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반적인 양식 생산량(내수면, 해수면 모두 포함)은 2020년 3% 증가한 5,210만톤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5,220만톤, 2022년에는 5,27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가공 부문 생산량은 2017년 2,200만톤에서 2020년 2,230만톤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0

년 가공 생산량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34%에 불과했다. 조사 기업은 가공 수산물 생산량이 2021년 2,270만톤을 기록한 후 2022년 2,3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 측면에서, 중국 수산물 소비량은 2017년 6,500만톤이었으나 2020년 6,850만톤으로 지난해 대비 5.1% 성장했다. 조사 기업은 중국 내 수산물 소비량이 2021년 총 6,960만톤, 2022년 7,08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 지역 중국인들의 1인당 소비는 상승 추세를 보이며 2019년 16.7kg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골 평균 소비량은 9.6kg으로 훨씬 낮았다. 이는 도시화가 수산물 소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 기업은 전체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2021년 14.25kg에서 2022년 14.9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1년 12월 9일자

Planet Tracker, IUU 활동 위험 평가 도구 마련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 가능

Planet Tracker는 'IUU 감지 도구(IUU Detection Toolkit)'를 마련했다. 해당 도구는 IUU 어업으로 인한 피고소 여부나 선박 소유 투명성 등 30개의 네/아니오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 수준 점수는 0~61점이다.

Planet Tracker의 의견에 따르면 다수의 질문

에 해당될 경우, 투자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Planet Tracker는 해당 도구를 적용해 나스닥 상장 어업 회사인 중국 기업 Pintan Marine을 평가한 결과, IUU 점수 72%로 적색 표시 비율이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1년 12월 13일자



日, '22년 고등어 TAC 감소 가능성 높아

태평양 15%, 동해 28% 감소 예상

일본 수산청은 지난 12월 24일, 2020년 조사와 어획 데이터 등을 반영해, 고등어류(참고등어 태평양, 망치고등어 태평양, 참고등어 쓰시마난류, 망치고등어 동중국해 등 4계군) 자원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어기('22년 7월~'23년 6월)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ABC) 평가 결과, 최다인 참고등어 태평양계군이 지난해보다 적은 49만 9,000톤으로 평가되었다. 망치고등어 동중국해 계군을 제외한 나머지 3계군의 자원평가량은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2022년 어기 고등어 TAC는 태평양 15%, 동해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등어 태평양계군의 목표관리기준량(최대지속 생산량(MSY) 달성 가능한 산란 생물량 수치)은 154만 5,000톤이다. 어획 압력은 증가했으나, 산란 생물량이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22년 어기 산란 생물량은 목표관리기준량을 상회하는 197만 9,000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 2개 계군의 '22년 어기 ABC 합산치는 총

50만 9,000톤으로, '21년 어기 TAC(59만 6,000톤) 대비 15% 감소했다.

동해 2계군(참고등어 쓰시마난류, 망치고등어 동중국해)은 한국 어획량을 반영해 평가했다. 참고등어 쓰시마난류 계군의 2020년 자원량은 역대 최저 수준인 36만톤을 기록했다. 그러나 '21년 어기의 ABC를 13만톤으로 감축했기 때문에, 산란 생물량은 현행 관리를 유지해도 10년 후 50% 확률로 목표 관리기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망치고등어 동중국해계군의 '18~'20년 자원량과 '19~'20년 산란 생물량은 하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10년 후에는 목표관리기준량에 도달할 확률이 5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동해 2개 계군의 '22년 어기 ABC 합산치는 12만톤으로, '22년 어기 TAC(17만 8,000톤) 대비 28% 감소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1년 12월 28일자

노르웨이, 고등어 임시 쿼터 10만톤 설정

여름 이전에 최종 쿼터 설정 예정

노르웨이는 어업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조업할 수 있도록 고등어 임시 쿼터 10만톤을 설정했다.

북동대서양 연안국들은 고등어 총쿼터를 79만 4,920톤으로 확정했지만 국별로 어떻게 분배할

지에 대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정부는 본격적인 고등어 조업이 시작되는 여름 이전에 최종 쿼터를 설정할 예정이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24일자



노르웨이 수산물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고등어 역대 최고, 청어 최고치 근접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NSC)는 2021년 노르웨이 원양(pelagic) 어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노르웨이의 2021년 수산물 수출 매출액은 약 111억 크로네(약 12억 5,000만 달러)로, 종전 기록 대비 22% 증가했다.

고등어 수출량은 38만 9,000톤, 수출액 59억 크로네로 종전 기록 대비 각각 30%, 18%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노르웨이산 고등어 최대 소비 시장이었다. NCS의 Johan Kvalheim 한·일 총괄이사에 따르면, 노르웨이산 고등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양국에 있어 중요해졌다. 양국의 자국산 고등어 어획량 감소 또한 이러한 수요 증가에 일조했다.

그는 공급 증가로 인해 어업 시즌 초기에는 2020년 대비 가격이 하락했으나, 시즌 후반에 이르러 아시아 수요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고, 일부 시장에서는 kg당 평균 20 크로네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청어 매출 또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으로 급증했다. 총 수출량은 35만톤, 수출액은 42억 크로네로 각각 2020년 대비 10%, 11% 증가했다.

2022년 노르웨이 원양 쿼터는 △고등어 10만톤(잠정치, 현재 쿼터 협상 중), △북해 청어 12만 6,358톤(지난해 대비 20% 증가), △봄 산란 청어 45만 4,927톤(8% 감소), △청대구(Blue whiting): 20만 230톤(18.5% 감소)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2년 1월 7일자

英·노르웨이·EU, 2022년도 북해 어획 쿼터 합의

청어 약 42만톤, 대구 약 1만 3,246톤 등

영국, 노르웨이, EU가 2022년도 어획 쿼터 3자 협정에 서명했다.

3개국은 국제해양개발위원회(ICES)가 권고한 어획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쿼터를 설정했다.

대구 쿼터는 1만 3,246톤을 유지했으며, 청어 쿼터는 42만 7,628톤으로 20% 증가했다. 청대구 쿼터는 25% 증가한 2만 6,636톤이다. 해덕대구 쿼터는 5% 증가한 4만 4,924톤이며, 북대서양대구 쿼터는 4만 4,950톤으로 24% 감소했다.

영국은 해덕대구 쿼터 전체의 63% 이상인 2만 8,432톤의 쿼터를 할당받았다. 북대서양대구 쿼터의 경우, 노르웨이가 전체의 52%를 할당받았고, EU는 36.8%(1만 6,564톤)를 할당받았다. 가자미 쿼터는 12% 감소한 12만 5,692톤이며, EU는 그 중 66.5%를 할당받게 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News, 2021년 12월 10일자, Intrafish, 2021년 12월 10일자, Fiskerforum, 2021년 12월 11일자



겨울 바다

김 남 조

겨울 바다에 가보았지
온몸으로 울면서도
바람이 심 없이 달리는 것은
동쪽 끝의 빛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바다는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있었다

적은 가슴 바다에 담그면
넓은 마음 내게 보여 주었지

폭풍을 뚫고 가는 그곳에는
새벽 별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성공적 추진 가속화한다.

업무협약 체결, 문화공원 2만 6천㎡ 조기 개방

해양수산부는 12월 23일(목),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하 '북항 1단계 재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자체 감사(올해 4~7월)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북항 1단계 재개발 업무추진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지난 10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으나, 트램 차량 비용과 공공콘텐츠(1부두 복합문화공간 및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등 시행 주체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광역시 및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견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합의(안)를 마련했고, 지역사회 최인호, 안병길 국회의원의 협조를 통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업무협약서'를 마련했다.

업무협약서 내용은 △1부두는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보존하고 복합문화공간 대신 대체되는 공원시설 계획 수립, △해양레포츠 콤플렉스는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 △트램 사업 추진 관련, 기반시설에 트램 차량의 포함 여부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따르는 등 주요 이견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업무협약과 함께 해수부는 문화공원 2만 6천㎡ 부지를 협약식 당일부터 개방하여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내년 1월 2일까지는 크리스마스존, 이글루존과 같은 이벤트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알려왔으며, 내년 5월에는 더 많은 면적의 공원과, 경관수로, 보행데크 등의 공공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여 북항을 바다와 함께 휴게공간으로 온전히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전년 대비 113,600원 인상(5.05% ↑)된 월 2,363,100원으로 책정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3,100원으로 31일(금)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49,500원에서 113,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

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2년 선원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914,440원보다 448,660원 높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해수부, 수산물 소비 확대, 물가 안정적 관리 추진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상생할인 행사,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추진

해양수산부는 1월 6일(목)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 전략'과 '설 물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 2022년 수산물 수급관리전략

1. 수산물 상생할인

올해도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을 2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30여개 온오프라인 업체와 연계하여 설, 추석 등 수산물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총 3회 이상*의 할인 행사(20% 할인, 1인 1만원 한도)를 개최한다.

* 설(1.17~2.2) → 양식특별전(4.28~5.12) → 추석(8.25~9.12), 일정 변동 가능

특히, 지역 어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에 배정되는 예산 비중을 상향('21년 15% → '22년 30%, 총 60억원)하고 제로페이와 연계한 온라인 상품권 발행,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비축수매

올해 해양수산부는 총 754억 원을 투입해 물가 관리 대상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 우리 국민의 소비가 많은 어종(대중성어종) 6종을 수매(약 1.5만 톤)하여 비축할 계획이다. 수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시기에 해당 어종을 구매할 예정이다. 또한, 설, 어한기(5월), 추석 등 정부에서 비축한 수산물을 방출할 때에는 소비자가 직접 수산물 방출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트, 전통시장 등에 우선 공급하는 한편, 홈쇼핑 등과 연계하여 판매처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유통·가공·보관 업체 등을 대상으로 654억원 규모의 수매 융자금을 지원하여 시장의 수매 기능을 확대하고,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매 실적 관리를 강화한다.

3. 공공부문 소비 창출

학교 및 군 급식 등 단체급식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단체급식용 수산물 조리법을 개발하는 한편, 학교와 군 급식을 책임지는 영양사

와 조리병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대면 수업 증가 등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섭취 권고량을 분석하여 섭취기준을 마련하여 홍보하는 등 영양학적 측면의 소비활성화도 유도한다.

◆ 2022년도 설 물가 안정 대책

1. 설 명절을 맞이하여 1.17~2.2일 간 대중성어종 6종에 대해 20% 할인 행사 추진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고,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설 맞이 집중 할인 행사를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업체 30여 개와 연계하여 설 명절 전 소비가 집중되는 2주 간(1.17~2.2) 대중성어종 6종에 대한 20% 할인 행사를 추진하며, 1인당 한도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국 약 34개 전통시장에서는 설 직전 7일 간(1.24~1.30) 그 날 구매한 수산물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수산물 온라인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2. 정부 비축물량은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방출 추진

수산물 주요 성수품인 대중성어종 6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6,166톤을 1월 6일(목)부터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방출한다. 명태 4,316톤, 고등어 704톤, 오징어 412톤, 갈치 225톤, 참조기 460톤, 마른멸치 49톤이 방출될 예정이다.

정부비축 수산물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며, 남은 물량은 도매시장이나 전자입찰(B2B)로 배정할 계획이다.



2021년 농수산물식품 수출액, 역대 최초로 113.6억불 달성

농식품 85.4억불, 수산물 28.2억불로 각각 역대 최고치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농수산물 식품 수출액(잠정)이 역대 처음으로 100억불을 넘어 전년보다 15.1% 증가한 113.6억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 85.4억불(12.9%↑), 수산식품 28.2(22.4%↑)

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전년과 비교하여 주력 품목인 김, 참치 이외에도 어묵, 굴, 넙치 등 여러 품목의 수출액이 상승했다.

* 김 692.8백만불(15.4%↑), 참치 579.2(9.7↑), 어묵 49.5(9.7↑), 굴 80.1(12.0↑), 넙치 55.0(27.6↑)

그 중에서도 수산식품 중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0

년 넘게 매년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다.

참치의 경우,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횡감 및 스테이크용 참치 수요가 늘어나고, 통조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7% 증가한 5.79억불로 수출액 2위를 지키고 있다.

* 참치 국가별 수출실적: 일본 208.0백만불(16.7%↑), 태국 64.9(38.1↓), 프랑스 53.6(76.0↑)

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미국 내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전체 수출액이 12.0% 증가하였다.

* 굴 국가별 수출실적: 일본 28.5(11.1%↓), 미국 24.3(42.9↑), 홍콩 11.3(29.4↑)

1월 이달의 수산물 과메기, 김, 홍합

과메기 오메가-3·필수 아미노산 풍부, 겨울철 건강 유지에 효과

해양수산부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1월 이달의 수산물로 과메기, 김, 그리고 홍합을 선정했다.

추운 겨울에 먹으면 더 맛있는 과메기는 등 푸른 생선인 청어와 꽂치를 바다 바람으로 건조시켜 만드는데, 오메가-3 지방산(DHA, EPA)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피로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류신, 라이신, 메티오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겨울철 건강 유지에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과메기는 미역, 김과 함께 쌈을 싸서 주로 먹지만, 새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에 갖은

야채를 넣어 무침을 해 먹어도 좋다. 뿐만 아니라 조림, 볶음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김은 해조류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이섬유, 비타민과 칼슘, 철분 등 무기질도 풍부해 미국의 저명한 잡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김을 한국의 '슈퍼푸드'라 소개하기도 하였다.

홍합은 다른 조개류와 마찬가지로 타우린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당뇨와 고혈압 예방에 좋은 베타인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최경삼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신현애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강성현 부장	589-1604	총괄
	공길웅 과장	589-1605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589-1606	사무관리, 차량운영
	이성재 이사	589-1607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08	홍보
	김민재 사원	589-1609	기획홍보지원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효상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상진 사원	589-1619	노사, 선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신현애 상무	589-1612	총괄(겸직)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주임	589-1614	참치선망
	김태호 사원	589-1615	참치연승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조성주 과장	589-1617	북양, 콩치
부산지부	최동환 주임	589-1618	오징어, 기타트롤
	-	(051) 253-3388	총괄
	이형균 이사	(051)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김현애 과장	(051)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물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기구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일반/지역수산물기구
		정수진 행정관	044-868-7837	인사, 행정, 정보조사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對 일본 업무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일반/지역수산물기구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ODA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물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운홍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675-321-8137 jc651016@gmail.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41호

발행처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발행 : 2022년 1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특수법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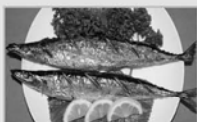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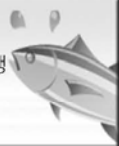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